



조선인민이 누리는 참된 삶



2024

차 례

붓을 들면서	3
1. 정치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5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정치적권리와 자유.....	5
○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5
○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2) 오직 조선에서만... ..	11
○ 여성노동자대의원.....	11
○ 특유의 현상	12
2. 경제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14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사회경제적권리	14
○ 노동에 대한 권리	14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3
○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25
2) 인민적인 시책.....	29
○ 세금이라는 말을 모르고 산다.....	30
○ 집값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32
3. 문화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34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사회문화적권리	34
○ 교육을 받을 권리.....	34
○ 건강에 대한 권리.....	39
○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보장	43
○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	47
○ 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53
○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59

2) 인민의 지상락원	64
○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주는 과외교양기지들.....	64
○ 축전무대를 훌륭히 장식한 조선의 학생들.....	66
○ 심오한 역사적의미	67
○ 소박한 이름	70
○ 로동자궁전	73
○ 복을 안겨주는 《집》	76
○ 멋쟁이휴양소에서 《신혼생활》	77
○ 의사담당구역제	80
○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81
4. 특정한 집단도.....	84
1) 특정한 집단이 보장받는 권리.....	84
○ 여성의 권리보장	84
○ 아동의 권리보장	87
○ 년로자의 권리보장	92
○ 장애자의 권리보장	98
2) 헌신적인 사랑속에서	104
○ 여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	104
○ 700 만 어머니들이 안겨사는 품	108
○ 아동권리가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 나라	110
○ 아이들의 호텔	112
○ 동화세계에 빠지게 하는 육아원과 애육원.....	115
○ 가혹한 재난속에서도 잃지 않은 꿈, 희망.....	117
○ 대규모수산기지 - 누구를 위한것인가.....	119
○ 행복한 삶을 누리는 로인들	121
○ 장애자들을 위한 조치	123
붓을 놓으며	12525

붓을 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편견없이 들여다보자》, 이것은 언제인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어느한 나라의 사회단체가 올린 글의 제목이다.

그 글이 얼마나 인상깊었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방언론들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고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백지장처럼 결백한 성품을 지닌 인민이다.

서로 돕고 이끌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속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민이다.

그들은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조건에서도 언제나 낙천적으로 생활하고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 어떤 불안이나 동요, 근심 같은것을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웃음에서 래일에 대한 낙관을 느낄수 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무엇이나 다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하였다.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전쟁위협속에서 살고있으나 그들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모든것을 훌륭하게 해나가고있다.

지금 조선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시간이 다르게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이 날로 커가고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호화롭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으며 계획경제의 위력이 최대로 발양되고있다...

서방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허나 조

선에 가보면 그 리유를 쉽게 알수 있다.》

그야말로 편견없이 들여다본 조선에 대한 견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오늘 조선인민모두의 마음속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그래서인지 자기 조국의 품을 가리켜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자신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식사회주의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다.

그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바로 조선인민들을 정치생활의 주인, 경제생활의 주인, 사상문화생활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기때문이다.

누구나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부르는 조국의 품속에서 조선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아직은 넉넉치 못한 생활형편속에서도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며 인간으로서 맛볼수 있는 기쁨이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몇십권의 책으로도 다 전할수 없다.

아마도 가입자들속에는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TV나 혹은 도서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누리는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서에서는 일부 자료들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이 누리는 생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어 조선에 대한 리해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1. 정치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정치적권리와 자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조선인민은 정치적권리를 기본인권으로 간주하는 공화국정부의 정책과 법률적, 제도적조치들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선거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정치적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선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수 없으며 결국 정치적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선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주권행사에 참가할수 없으며 결국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매개 국가들에서 공민들의 선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중요하게 결정된다.

조선에서 선거에 대한 권리는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과 여러 법규범에 따라 세워진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받을수 있으며 선거할수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선거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선거나이와 선거원칙, 선거권의 행사조건보장과 관련한 법질서들이다.

조선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규제된 선거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적선거원칙에 따라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제정 실시되는 선거관련 법규들에서 규제된 선거권부여나이는 18살이다.

그것은 조선에서 이 나이에 이른 청년들이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과 집단생활을 통하여 정치사상수준과 지식수준, 육체적능력이 훨씬 높아지고 따라서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선거권부여나이를 18살로 정하였다는것은 이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받을 권리와 선거할 권리를 부여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18살의 모든 국민은 일반적선거원칙에 따라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조선에서는 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서 복무하는 국민들에게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국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법적으로 규제된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따라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평등적선거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누구나 다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이다. 평등적선거원칙은 선거에서 그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으며 선거할 권리를 가진 국민이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매 선거자의 투표효력이 같게 할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매 선거자들이 선거자명부에 단 한번만 등록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장의 선거표를 가지고 한번 투표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수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직하고 매 선거구에서 한명의 대의원을 선거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적선거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있다.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자들 자신이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들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이다. 주권기관선거에서 직접적선거원칙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기의 대표자, 인민의 총복들을 직접 선출할수 있게 한다.

조선에서는 선거자들 자신이 대의원후보자추천회의에 참가하여 직접 자기의 대표자, 인민의 총복인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도록 하며 선거당일에는 선거표를 선거자 자신이 직접 선거함에 넣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선거원칙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누구도 선거자의 선거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또한 법적으로 규제된 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라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비밀투표는 투표할 때나 투표한 후를 막론하고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함으로써 선거에서 선거자들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방법이다.

조선에서는 선거할 때 투표장소를 비밀실로 꾸리고 선거자이외에는 그 누구도 드나들수 없게 하며 선거표의 규격과 색깔, 질, 기재내용 등을 완전히 규격화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함으로써 투표와 투표결과의 비밀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그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선거권의 행사조건과 관련한 법적질서에 따라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

거가 있을 때마다 정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5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씩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하고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성원들로 조직된다.

선거자명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분구(구)를 단위로 작성하며 모든 선거자들이 볼수 있게 선거날 15일전까지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에 그 사본을 공개한다.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을 등록한다.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하며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7일전까지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나이, 직장직위, 간단한 경력을 밝혀 공시한다.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하며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의 투표실을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리고 투표를 진행하게 하며 투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선에서 이러한 선거권의 행사조건보장과 관련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조선에서의 선거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형식인 선거를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자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데 조선에서의 선거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있다.

2019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모든 공화국공민들은 자기의 선거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였다.

△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향유는 물론 그를 위한 조건보장까지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인간이 지니고 행사하는 정치적권리에서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장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현 세계에서 매개 국가들의 인권보장제도를 평가하는데서 불가결의 요소로 되고있다.

조선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인권적요구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방송일군양성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능력있는 방송일군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하고있다.

조선에는 국가방송을 대표하는 중앙방송기관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지방방송기관인 도(직할시)방송위원회들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는 기자, 편집원, 작가, 번역원, 방송원, 연출가, 촬영가, 미술가 등 많은 성원들이 소속되어있으며 각종 방송을 담당한 집단과 기술집단이 소속되어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을 통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로동통신원, 시청자, 청취자들과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알아맞추기경연, 전국아동방송음악예술무대 등을 조직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직접 출연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특히 국가적 및 세계적인 정치적사변들과 계기들을 맞으며 광범한 대중의 목소리를 여러 방송수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조선에서는 출판물을 통한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은 인쇄수단을 리용하여 찍어내서 내보내는 신문, 잡지, 도서 등과 같은것으로서 사람들의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출판물을 통하여 실현된다.

조선에는 중앙과 지방, 공장, 기업소, 대학들에서 발행되는 수백종의 신문들이 있으며 수십개의 출판기관들에서 발행되는 잡지들이 있다. 이러한 각종 신문, 도서,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통하여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은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1945년 11월 1일에 평양에서 창간된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대중에게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즐겨읽는 인기신문, 필독신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그러한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어떤 구속이나 차별도 없이 부여되고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방송출판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 그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데 그 우월성과 특징이 있다.

2) 오직 조선에서만...

△ 여성로동자대의원

조선의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여성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여성들의 공장이다.

온갖 문화적인 로동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이 공장에서 평범한 여성로동자들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이들속에서 여성영웅, 여성로동자대의원, 여성로력혁신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입니다.》

조선인민모두가 알고있는 영웅직포공, 대의원직포공인 문강순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30대 초엽에 그는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포공으로 사회에 첫 걸음을 내짚었을 때 하루빨리 혁신자가 되고싶은 충동이 그를 분발시켰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끊어진 실을 제때에 잇지 못해 기대를 세워두는 시간이 길어지다나면 그날 계획을 수행 못할 때도 있었다.

남의 집이 되는것이 부끄러워 그는 분발했다. 합숙으로 돌아와서도 실잇는 훈련을 했다. 한밤을 새우며 훈련을 해도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밤을 새웠다.

모의훈련속에 날과 달을 보내는 속에 몇달만에 10대의 기대를 당당히 받아볼수 있게 되었으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4년째 되는 해에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그 공로로 그는 처음으로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때 그는 나라의 옷감생산에 이바지한 당당한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첫 발자욱을 뗀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그는 기대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단축할수 있는 순회방법을 생각해냈으며 정량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아보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넘쳐수행하였다.

그 나날 문강순은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후 새 가정을 이룬 그에게 나라에서는 새 살림집을 배정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새 집을 몸소 찾아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축복해주시었다.

조선에서는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어 여성들이 온갖 사회적질곡과 불평등,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라의 주인으로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룡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인민들의 축복속에 대의원이 된 여성들속에는 로동자도 있고 교원도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도 있고 유명한 체육인들도 있다.

△ 특유의 현상

이 행성의 많은 나라들에서 온갖 사기와 헐잡, 파썸적폭압으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을 때 조선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현실, 특유한 현상이 펼쳐지고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있는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그가 누구이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받을수 있으며 선거할수 있습니다. 정당관계, 재산의 유무, 거주조건, 신앙여하 기타 어떠한 점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거나 제한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세워진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주권기관의 한 성원으로 당당히 선거되는 조선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선출하는 의의깊은 사변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선거일을 하나의 큰 명절로 맞이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1946년 11월 3일에도 온 나라 인민들이 선거장들에 솔문을 세워놓고 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조선인민은 선거를 할 때마다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기쁨을 안고 스스로 커다란 궁지속에 노래와 춤바다를 펼쳐놓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이처럼 선거날이 하나의 큰 경사로 되고있는 나라는 이 행성 그어디에도 없을것이다.

2. 경제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사회경제적권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가 모두 인민들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돌려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끊임없이 풍족해지고있습니다.》

경제적권리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 및 물질생활과 관련한 권리로서 인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에서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아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경제적권리에는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권리와 자기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고 모든 물질적재부가 경제제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마련되는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제생활에서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으면서 참다운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 로동에 대한 권리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보호법, 로동정량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일할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알맞는 직업을 가질 권리,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 등이 속한다.

알맞는 직업을 가졌지만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자기가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받지 못한다면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수 없다. 때문에 로동에 대한 권리는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한것만큼 분배받을 때에만 원만히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에서의 로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한것만큼 분배받는것 등과 관련한 법질서들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는 직업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로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자면 일정한 직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직업이 안정된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에서 모든 공민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들의 로동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7살미만의 미성인들을 국가적인 로력원천에 포함시키거나 그들에 한하여 로력과전장을 발급할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그 어떤 리유로도 그들을 로동시킬수 없다.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일할 나이가 되면 능력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보장해주고있다.

여기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나이,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들을 적재적소

에 배치해주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력배치를 진행하고있다. 이에 따라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서는 생산부문 로력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있다.

로동이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들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수많은 청년들이 청춘시절을 위훈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였으며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섬분교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로동의 구슬땀을 흘려가는 이러한 모습은 오직 로동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모습이다.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로동조직에서 균중로선이 구현되며 로력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되는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안정된 직업에서 로동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조선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안정된 일자리보장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선에서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로동조건보장은 로동에 대한 권리보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여기에는 로동시간제, 로동보호제, 휴식제도가 포함된다.

우선 조선에서는 8시간로동제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조선에서의 8시간로동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 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실시된 인민혁명정부의 시책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기초하여 해방후 민주주의로동법령에서 법화되었으며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다시금 명백히 법화되어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 안정된 로동조건보장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다.

8시간로동제는 조선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로동시간제로서 일반적인 로동부문, 사무부문에서 널리 적용된다. 8시간로동제외에 7시간로동제, 6시간로동제가 실시되는데 그 적용기준은 7시간로동제에 한해서는 로동의 힘든 정도이며 6시간로동제에 한해서는 로동조건이 특수성이다.

실례로 탄광, 광산에서 갱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금속공업부문의 용해공, 압연공과 같이 힘든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7시간로동제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가 적용된다.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우와 같은 로동시간외에 로동시키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8시간로동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에서는 로동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사소한 로력낭비도 없애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정된 로동시간을 최대한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서 다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질서인 출퇴근규률, 작업교

대규를, 로동시간리용규를, 로력을 받는 질서, 로력이동질서 등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로동보호제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로동보호제는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현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속에서 로동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조선에서는 로동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시키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로동과정에 로동채해와 건강상피해를 입지 않도록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놓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도록 하고있으며 로동위생조건을 보장하고 치료예방사업과 건강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힘든 육체적 및 유해로동을 금지하고있으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젖먹이는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기준에 따라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해주며 로동과 휴식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동안전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로동보호와 관련한 이러한 조치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은 더욱더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생산장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낡은 설비들을 들어내고 현대적이며 고속화된 설비들을 창안 도입, 제작설치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생산현장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합숙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의 혜택이 충분히 차례지고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동생활조건과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사람은 휴식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노동과정에 생기는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에 필요한 건강도 유지하며 문화정서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에도 참가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는 뿔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은 제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휴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끊임없이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을 하며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한 명절날과 휴식일에는 휴식하며 일정한 사정(례하면 급양봉사사업)으로 쉬는날에 노동한 근로자들은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받는다.

노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으며 특히 여성 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전국각지에 꾸려진 휴양소들과 국가기관, 기업소들에 꾸려진 정양소들의 운영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어 근로자들의 문화적휴식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체육문화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 소총, 다층살림집들 등 모든 구성요소의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예술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세계적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새로 건설하였다.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온천관광을 하면서 휴식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로동은 사회적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다. 따라서 로동의 권리가 원만히 보장되자면 로동의 결과에 따르는 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바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 2항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한편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7조에서 모든 로동자들에게 그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똑같은 가치의 로동에 대한 공정한 로임과 동일한 보수 특히 남자와 똑같은 로동조건에서 일하는 녀성들에게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지불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규제된 사회주의로동보수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주는 제도이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로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등급화하고 그를 기준으로 하여 서로 차이나게 생활비를 계산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로동자, 사무원, 농장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대표적으로 도급지불제와 상금제에 대해 보면 도급지불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정량을 정하여주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로동보수를 계산지불하는 로동보수형태로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상금제는 국가가 설정하여준 일정한 지표를 질량적으로 넘쳐 수행한 모범적인 집단 또는 개별적근로자들에게 주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의 추가적형태로서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적용되는 상금에는 기업소의 자체자금을 원천으로 주는 상금, 우대기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교육, 체육, 국토환경보호 등의 여러 부문과 지방예산제, 준법기풍확립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주는 상금 등이 있다.

조선에서 생활비는 보통 로동을 수행한 한달을 주기로 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며 농장원들이 받는 분배는 년간을 통하여 번 로력일에 의하여 년말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조선에서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각 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노동기준이며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인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여기에서는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노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의 이러한 노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하는 제도, 그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속에서 일할수 있게 하는 제도, 충분한 노동보수와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데 그 본질적우월성과 특징이 있다.

조선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노동에 대한 의무와 련결되어있다. 그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가 남에 대한 착취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공민들이 노동능력에 맞게 일하고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받는 사회이며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적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할데 대한 국가적요구를 제기하고 그 리행에 법적성격을 부여하고있다.

공화국공민들의 노동의무에는 주인답게 일할데 대한 의무,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할데 대한 의무, 기술혁명에 적극 참가할데 대한 의무,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국가사회보장제를 통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해준다.

국가사회보장제는 국가가 노동능력을 장기적으로 또는 완전히 잃은 근로자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 어린이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종 형태의 물질적방조를 주는 제도이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조선의 모든 근로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노동생활을 할 때에는 물론이고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일을 할수 없는 경우라든가 법적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정된 생활을 국가로부터 담보받고있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에는 년금 및 보조금제도, 교정기구 및 삼륜차공급제도 등이 있다.

조선에서 노동능력을 장기적으로 또는 완전히 잃은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은 자기의 생활보장을 위한 년금,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에는 그 대상에 따라 년로년금제, 공로년금제, 노동능력상실년금제,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년로년금은 나이가 많아 육체적인 로쇠로 하여 일을 할수 없게 된 년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자금으로서 사회보장금에서 기본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년로년금제는 인민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시책에 따라 실시되는 사회보장혜택의 하나로 되고있다.

년로년금적용에서는 국제, 국내체육경기에서 우승한 체육인들과 탄광, 광산, 지질탐사, 건설, 발전소, 철도운수부문 등의 직종에서 오래동안 일한 대상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돌려진다.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에는 혁명투쟁공로자, 유가족에게 주는 보조금과 병 또는 부상으로 현직에서 일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 농장원들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보조금,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에게 주는 특별보조금, 세대안에 로력자가 없거나 부모없는 어린이와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를 데려다 부양하는 세대에 주는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조선에서 로동자, 사무원, 군인과 그 부양가족들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 교정기구 및 삼륜차를 생산, 공급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부상당한 근로자들, 장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상불편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 어린이, 장애자들은 국가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동을 통하여 생활상방조를 충분히 받고있다.

사회보장기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조선에는 전쟁로병보양소,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영예군인공장 등과 같은 사회보장기관들이 있다.

조선에서는 로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잃은 공민들을 위하여 경로동직장을 조직운영하고있는데 이 제도는 조선에만 있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되고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욱 개선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금의 지출, 사회보장기관들의 조직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보조기구의 생산을 늘이고 그 공급을 정상화해나가도록 하고있다.

△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국제적으로 볼 때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를 일명 물질생활을 향유할 권리라고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의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봉사를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이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으며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매개 국가들이 충분한 식량, 옷류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는 사람의 경제적권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우선 먹을것과 입을것, 쓰고살 집이 있어야 한다. 잘 먹고 잘 입고 잘살아보려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경제적권리에서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가 가장 선차적이고도 필수적인 권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편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가 원만히 보장되어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빛내어나갈수 있다.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를 조선에서는 간단히 식의주에 대한 권리라고 표현한다.

조선에서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는 농업법, 사회주의상업법, 살림집법, 편의봉사법을 비롯한 많은 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알곡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 농업생산물의 관리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도록 하고있다. 특히 종자와 비료, 물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업생산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속에서도 특히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봉쇄속에서도 해마다 알곡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축산과 수산, 양어, 과수에서 엄격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고있다.

축산부문에서 국가적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 젖과 같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수산부문에서는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앞세우면서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많은 수산기지들을 새롭게 일떠세우고 수산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있다. 특히 인민들의 식탁우에 수산물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많은 물고기양어기지들을 일떠세우고있다.

과수부문에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파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에서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가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식료공업과 사회급양사업에서 엄격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우고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법적요구에 맞게 활발히 진행되어 새 세기에 들어와 대동강맥주공장, 강계포도술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강서약수

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수많은 현대적인 식료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개건현대화되었다.

조선에서는 특히 된장, 간장을 비롯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기초식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낮은 값으로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정연한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나가고있다.

사회급양부문에서는 조선민족의 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치수를 높이고 음식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이 봉사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가정에서 녀성들의 부담이 훨씬 덜어지고있다.

사람은 입을것이 있어야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창조적활동을 할수 있으며 건전한 문화도덕생활을 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사람은 먹을 권리와 함께 입을 권리가 원만히 보장되어야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는 경공업공장들에서 국산화와 현대화를 법적요구로 내세우고 제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염색종합직장에서는 가방천생산 및 염색공정을 새롭게 꾸리고 방적종합직장, 기료품직장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갖가지 질좋은 천들을 생산해내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질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갖가지 침구류들을 생산하여 상업망들에 보내주고있다.

그리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신부들로부터 생일을 맞는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색깔의 이불들을

늑은 값으로 봉사받고있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국책으로 하고있다.

평양창광옷공장, 만경대피복공장, 모란피복공장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옷공장들에서는 재단품의 재질, 형태별특성에 맞는 기대조작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학생들의 교복을 비롯한 다양한 옷생산을 늘이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는 자동흐름식 녀자, 남자양말생산기지를 꾸려놓고 형태와 무늬, 계절과 나이에 따르는 질좋은 각종 양말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하고있다.

운동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질 좋고 편리한 운동신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고있으며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최립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창생산공정을 새로 꾸려 인민들이 신고다니는 신발창의 무게를 평균 15~20g이나 경량화하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현재 다종다양한 수십종의 남, 녀, 아동구두를 개발생산하고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매봉산》 구두는 인민들로부터 질이나 형태에 있어서 최고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련관된 편의봉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다양한 옷차림에 대한 인민들의 높아지는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옷차림에 대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편의봉사망들을 꾸리고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있으며 여기에서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민족적정서에 맞으며 조선녀성들의 몸매에 잘 어울리고 활동에도 편리한 민족옷이다. 조선치마저고리의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 은근하고 섬세한 무늬, 부드러

우면서도 선명한 색깔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여성들의 미적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여성들 누구나 즐겨입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해준다.

살림집에 대한 권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초보적으로 향유하여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살림집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년차적으로 밀고나가고있으며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건설한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주는 인민적시책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최근에만도 수도 평양에는 5만세대살림집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어 송화거리, 화성거리, 전위거리가 일떠섰고 지방의 곳곳에서는 훌륭한 농촌살림집들이 련이어 일떠서 농장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살림집에 대한 사용료금은 거의 무료나 같은 액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한지에서 생활하는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의 현실과 비해볼 때 무상으로 받아안은 살림집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 조선인민들의 모습은 살림집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는 공화국정부의 경제적권리보장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조선에서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들을 국가부담으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것이며 그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향유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2) 인민적인 시책

△ 세금이라는 말을 모르고 산다

우리 행성에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전체 인민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는 인민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뿐일 것이다.

조선에서는 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역사적인 법령이 발표되어 세계적으로 세금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에 우리는 미제의 대규모전쟁연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국청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폐지하고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과 싸우는 인민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주었습니다.》

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속에 이제는 아이이건 어른이건 조선사람이라면 세금이라는 말을 모른다.

그래서인지 세상사람들은 조선을 가리켜 《세금을 모르는 나라》, 《세금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부르고있다. 이것은 세계에 통용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독특한 대명사이기도 하다.

공화국정부는 법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왔다.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취한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에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었

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년후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었다.

그후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에 따라 1974년 4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주민소득세제와 지방자치세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되었으며 고마운 그 인민적시책은 오늘까지 변함없이 실시되어오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세금을 전혀 모르고 사는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다.

국가에서 지어준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아 리용하면서도 그 누구도 집세란 말을 모르고 살고있으며 아들딸모두를 대학공부까지 시키면서도 학비는 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공부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장학금과 보조금까지 받고있는것이 조선인민이다.

참으로 세금이라는 말도 모르고 나라의 혜택속에 사랑과 행복이라는 말을 먼저 듣고 익히는것이 바로 조선의 어린이들이다.

하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인민의 리익, 인민의 행복이 제일로 우선시되는 사회주의제도를 생명으로 여기고있으며 보답의 일념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 집값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언제인가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새 거리가 일떠섰을 때 한 살림집에서는 가정방문을 온 외국인들과 집주인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외국인: 《집값이 얼마입니까?》

집주인: 《모릅니다.》

외국인: 《어떻게 되어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집주인: 《나라에서 주었습니다.》

외국인: 《공짜로 말입니까?》

집주인: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들이 새 거리의 수많은 살림집들을 다 돌아보았다 하더라도 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실지 여러 집을 다녀보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던 집주인들은 집값이 얼마인가 하는 물음에만은 말문이 막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만한 집을 쓰고살려면 수십만US\$를 내야 한다고 말해주곤 하였다. 결국 손님이 주인에게 집값을 알려준것이다.

종시 의문을 풀수 없었던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어 이런 훌륭한 집을 공짜로 가질수 있는가, 혹시 당신들의 친척중에 권력가나 특권층이 있지 않는가고 다시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때 집주인들은 이 거리에 새집들이한 가정들의 대부분이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이다, 나라에서는 낡은 아파트들을 헐고 단 1년사이에 이처럼 훌륭한 아파트들을 건설해주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조선인민에게 안겨준 혜택이다.

조선인민이 생활에서 늘 쓰고사는 모든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하나로 련결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신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만이 베풀수 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입니다.》

조선은 오래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와 압력을 받고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살림집들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다는것이 외국인들로서는 매우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인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의 하나는 바로 나라에서 집을 지어 무상으로 주는것이다.

도시와 농촌 등 그 어디를 가보아도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나라에서 지어준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고있다.

조선에서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림집건설을 해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양과 지방의 곳곳에 일떠선 수많은 살림집들과 피해지역들에서의 련이은 새집들이경사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아마도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3. 문화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문화적권리는 사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도덕적품모를 갖추기 위한 권리이다.

사람은 인류가 축적한 정신적재부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건강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의료상방조를 받을 권리 등을 지니고 행사하여야 사회적존재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꽃피워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문화적권리를 지니고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의 문화적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등이 있다.

1) 조선인민이 보장받는 사회문화적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소유하게 된

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로 된다.

이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문건들에서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조선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원격교육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들과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규정, 맹, 룡아학교규정, 학교후원사업규정 등 많은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배울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는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철저히 보장해줄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조선의 인권보장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등일반교육은 나라의 전반적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에서 전반적의무교육제는 중등일반교육에 해당되는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6살때부터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 즉 12년간 중등일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의무교육을 위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들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키며 특히 깊은 산골, 외진섬과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룡아 같은 장애어린이들의 중등의무교육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전국각지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을 꾸리고 여기에서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고있다.

조선에서 전반적의무교육제는 전반적무료교육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의무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지 못한다.

조선의 무료교육제는 입학과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을 무료로 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시키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학교건설, 사회교육교양기지건설, 교육설비, 교구비품, 교육용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은 물론 실습과 견학, 답사를 위한 비용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부담해주고있다.

2012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은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 새 세대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학교전교육체계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전교육교양을 원만히 받을수 있게 현대적인 유치원들을 도처에 건설하고 교육교양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조선에서는 초등 및 중등, 고등교육체계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초등교육체계는 중등일반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초보적인 일반기초지식을 주는 교육체계로서 여기에서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마친 7살이상의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5년제소학교에 입학시켜 공부시킨다.

중등교육체계는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할수 있는 중등일반정도의 지식과 기술, 기능을 배워주는 교육체계로서 6년제(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체계는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무료로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교육체계로서 크게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구분된다.

특히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는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면서 마음껏 배우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실현해주는 교육체계이다.

조선에서는 이미 1947년 4월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후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1958년에는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체제로 개편하고 1989년말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수준이상에 이르게 되자 근로자중학교를 폐지하고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과 통신 및 야간교육망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제로 강화발전시키였다.

현재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실현해주는데서 원격교육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현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근로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을 자유롭게 습득하면서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대학과정안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졸업증을 수여받고있다.

조선에서는 수재교육과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수재교육체계는 일정한 부문에 대하여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교육체계이다.

조선에는 수재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는데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수재교육체계에 속하는 수재양성기관으로서 보통교육부문에 평양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각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있으며 고등교육부문에 김책공업종합대학,리과대학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대학들에 조직된 수재반과 박사원이 있다.

수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속에는 국제수학올림픽 2중, 3중우승자들과 마신아, 최장흥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신동들도 있으며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와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세계인터넷프로그램도전경연 등에서의 우승자들도 있다.

조선의 직업기술교육체계에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체계와 생산현장에서의 교육체계가 있다.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체계에는 직업기술대학과 직업기술학교가 포함되며 생산현장에서의 교육체계에는 생산현장에서 진행되는 기술기능견습 및 전습, 기술기능학습을 통한 교육이 속한다.

최근 직업기술교육체계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 봉사학교가, 평양교통운수대학에 룡상운수부문의 학부, 학과들이 새로 나온것을 비롯하여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학과들이 나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보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교육조건을 원만히 마련하고 교육환경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국가가 교육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의 철저한 실시를 확고히 담보해주며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준다.

현대적인 교육기관과 교육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

으로 내밀어 학생들이 훌륭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다.

교육설비와 기자재, 학용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국가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현대적인 민들레학습장공장과 평양가방공장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데 대한 법적요구가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데서 대표적실례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학교, 대학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하고있다.

사회교육교양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이밖에도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교양사업을 맡아하는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특히 대학들에서 박사원교육을 받은 실력이 높고 전망이 있는 대상들로 교원진영을 꾸리도록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져 나라의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 건강에 대한 권리

병이 생기면 제때에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요구이며 바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건강에 대한 권리이다.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해당 사회의 인권보장제도를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 문헌들에서도 규제하고있는 국제적관심사의 하나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의학과과학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조선에서와 같이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는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들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모든 의료기관들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며 환자치료에서 집체적협업체와 개별적책임제를 강화하고 환자의 체질적특성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며 환자를 제때에 치료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립산마을에 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또한 전국적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짧은 기간에 수립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의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도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의약품생산을 늘이고 그 감정의 과학성을 보장하며 의약품이 인민들의 건강과 치료에 정확히 리용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보건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의학과학연구기관과 보건기관들이 기초의학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면서 환자치료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고려의학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키고 보건일군들이 인간생명의 기사로서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지성을 다 바쳐 치료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예방치료제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막고 인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예방치료를 인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요구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있다.

공중위생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식료품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식료품생산과 판매, 공급에서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산업성질병을 비롯한 질병들의 발생을 미리막도록 하는 한편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법적대책을 더욱 정연하게 세워 전염병을 없애고 인민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들이 공화국령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의 도수를 높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조선에서의 예방치료제는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

리면서 무병장수하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실현시켜주는 인민적인 시책으로, 건강에 대한 참다운 권리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공화국에서 실시되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공화국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제도이다.

조선에서는 정연한 보건기관체계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의 보건기관에는 병원, 료양소, 질병예방통제소, 검역소와 같은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기관, 의약품검정기관이 속한다.

조선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보건기관들을 내오고 그와 관련한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치료예방기관만 놓고 보아도 조선에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도종합병원 등과 같은 종합병원들과 평양산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성치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수많은 전문병원들과 보건성제2예방원을 비롯한 예방원들이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료양소들이 건설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016년 10월에 완공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안과의료봉사기지로서 근로자들의 안과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병원에는 풍부한 림상경험과 높은 자질을 소유한 의료일군들과 빛간섭단층촬영영기(OCT), 유리체절제기, 엑시머레이자치료기를 비롯한 첨단의료설비들이 장비도입되어 진단의 정확성은 물론 수술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환자들의 치료부담도 덜어주고있다.

△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보장

과학과 문학예술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한다. 그런것만큼 사람은 응당 과학과 문학예술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예술을 즐기고 과학적진보에 참가하며 그 복리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제하였으며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5조 1 A와 B에서 모든 국가들은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과학의 진보와 그 적용에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우고있으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과학연구사업과 문학예술사업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모든 사람들이 과학활동과 문학예술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대중이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과학기술적진보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도입,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중시로선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과학기술활동에 널리 참가할수 있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열풍과 경쟁적인 개발창조가 시대의 주되는 지향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과학기술발명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이 사업에서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근로자, 대학생, 지어는 10대의 나어린 청소년들도 참가하고있다.

2018년에 진행된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에서는 함흥학생소년회관 정보기술소조원들이 발명한 원격시험체계에서 시험리력정보분석에 의한 프로그램작성능력평가방법과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다기능교실용전자칠판체계, 수학학습을 유희형식으로 재미나게 할수 있게 만든 학습지원체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양식을 주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문학, 극문학작품 등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고있다.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민이 사랑하는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이색적인 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제도를 비롯한 지적소유권제도를 통하여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고있다.

발명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으로서 그에 대한 보호는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에서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하면서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발명)이 신규성과 발명수준, 도입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발명권, 특허권을 부여하고있다.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기관에 내며 심의를 받아 보호를 받는다.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하도록 한다.

2019년 함경남도종합병원의 연구집단이 새롭게 개발하여 특허권을 받은 생물전기치료불임알과 생물전기치료기는 여러 의료부문에 도입되어 환자들에게 아픔과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효과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할뿐 아니라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학기술발전과 문학예술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에는 과학논문, 소설, 시와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과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TV 편집물 등 영상저작물, 회화, 조각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속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들은 재산적 및 인격적권리를 가지며 그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저작물을 리용하는데서 해당 절차와 질서를 엄격히 세움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발명, 특허, 저작물로 등록된 많은 성과물들이 금속, 화학,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 문학예술의 각이한 분야들에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실제적으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2018년에 평양교원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억력, 관찰력, 사고력,

집중력을 높일수 있는 주산놀이를 통한 어린이지능계발방법을 내놓았는데 이 저작물은 현재 국내의 여러 소학교들에 도입되어 해당 단위 교육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 조선에서는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을 비롯한 지적 소유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과 문학예술분야에서의 지적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과학과 문학예술의 창조자들이 그 혜택을 마음껏 받도록 한다.

인민대중은 과학과 문학예술의 창조자인것만큼 응당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을 누려야 하며 국가는 이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 국가적 혜택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2017년에만 하여도 국가적으로 의의있고 경제적가치가 큰 과학기술적발명을 한 190여명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과 과학기술혁신상 증서가 수여되었으며 평양의학대학 의학과과학기술교류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다.

2.16과학기술상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목표를 점령하고 경제의 자립성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하게 기여한 대상과제와 과학자, 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부문의 최고상이다.

조선에서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하였거나 새로운 발명을 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하여 신문, 방송, 잡지를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도 수많이 창작되고있다.

오늘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정부의 크

나쁜 배려에 의하여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높은 국가적우대를 받으면서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나가고있다.

조선에서의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단순히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라는데 그 중요특징이 있다.

과학적발견이나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뛰어난 과학자나 작가, 예술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창조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작가,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인민대중과 떨어져 고립적으로 새로운 과학적발명을 할수 없고 창작도 할수 없다. 더우기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과학과 문학예술이 발전하고있다. 때문에 과학과 문학예술에 대한 권리보장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권리보장으로 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

사람의 정신적활동과 육체적활동은 건강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이 몸이 튼튼하여야 높은 과학지식도 소유할수 있고 사회발전에 도 적극 기여할수 있다. 튼튼한 체력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몸을 단련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사람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에서 체육에 대한 권리는 체육법, 대중체육부문경기규정, 인민체력검정규정, 체육학교학생선발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자신의 사업입니다.》

조선에서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법적요구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체육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체육사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고있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학교체육과 과외체육, 대중체육, 가정체육을 강화하고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체육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학생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며 룽상, 구기, 체조, 수영 같은 체육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과외체육활동을 청소년들의 소질과 취미, 계절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실정에 따라 체육종목별소조를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에서 학령전어린이들의 연령과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체육활동을 널리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종업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침체조, 업간체조, 집단달리기와 같은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가정들에서는 체조, 걷기, 달리기와 같은 체력단련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인민들의 체력단련상태를 국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인민체력검정과 대중체육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매해 1월과 2월을 겨울철체육월간으로, 7월과 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매월 두번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체육의 날에는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벌리도록 하고있다.

특히 해마다 새해의 첫 체육의 날에는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집단달리기, 바줄당기기, 룽구, 스키

등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해마다 8, 9월을 인민체력검정월간으로 정하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가두녀성(장애자, 사회보장자, 장기환자, 산전산후휴가자 제외)들이 의무적으로 인민체력검정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체육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대중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는데 대체로 부문별, 종목별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대회도 진행한다.

체육월간, 체육의 날 운영, 인민체력검정과 대중체육경기는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들의 체육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시(구역), 군들에서는 모범체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 기관, 기업소와 각급 학교들에서는 모범체육단위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체육기술발전을 법적요구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체육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체육기술은 체육운동을 수행하는 수법이며 체육발전수준의 기본징표로서 체육사업의 발전뿐 아니라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체육선수들은 물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높은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소유하여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고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준다.

체육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체육종목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선수훈련을 강화하며 체육경기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나라의 실정과 인민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축구, 룡구, 마라손을 비롯한 파악있는 체육종목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체육종목의 기술도 발전시키도록 하고있다. 특히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고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

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전통이 있는 체육종목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여자축구와 마라손, 럭기, 권투, 탁구 그리고 레스링, 유술, 기계체조, 활쏘기와 같은 종목들에서 먼저 세계패권을 확고히 쥐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체육선수들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며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전술체계를 완비하는데 기본을 두고 체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훈련에서는 선수들의 모든 훈련공정을 과학화하며 현대적인 과학기술기재들과 수단들을 리용하여 훈련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체육경기를 부문별, 종목별로, 체육선수의 수준별로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선수들이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체육경기대회들과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전국도대항군중체육경기대회, 전국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등 각종 부문별, 종목별체육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체육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체육선수후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육체적준비가 좋고 머리가 좋으며 종목별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여 전망성있는 체육선수후비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국가가 정한 특기선수선발기준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수 있는 특기선수들을 선발하고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세계패권자를 많이 키워내고있다.

학생소년들이 과외에 체육훈련을 진행하는 체육학교를 널리 조직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들에서는 체육학교에 망라된 학생들을 공부끝나면 체육학교에 보내주어 체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체육학교의 훈련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현재 조선에는 평양국제축구학교, 체육학교를 비롯하여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대중속에서 선발된 훌륭한 인재들이 체육단들과 국가대표팀에 망라되어 전문체육기술을 연마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체육선수선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체육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조선에서는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일 사상적각오가 높으며 체육감각과 사고능력이 발달되고 육체적능력이 좋으며 나이가 어린 대상으로 체육선수를 선발하고있다.

체육단들에서는 해당 체육종목의 나이별기준에 도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그 종목에 맞는 적성체질을 가진 대상들을 체육선수로 선발하며 현직에 근무하는 대상(농장원 포함)가운데서 체육종목의 특성과 대상의 육체, 기술상태를 고려하여 발전성이 있는 대상은 직종에 관계없이 선발할수 있다.

이러한 선수선발제도와 질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자기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체육종목을 선택하고 그 전문선수로 활동할수 있는 권리보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체육의 물질적조건보장과 체육인우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체육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체육의 튼튼한 물질적조건 특히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떠나서 체육에 대한 권리의 원만한 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문화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도처에 여러가지 체육과 휴식을 할수 있는 공원을 많이 꾸려 온 나라를 체육시설망으로 뒤덮도록 하고있다.

체육시설건설은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진행하며 국제경기를 원만히 치를수 있게 전문체육시설과 대중체육시설건설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관리운영을 잘하는것을 전문체육기술발전과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실현을 위한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체육시설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특히 전체 인민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체육시설을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하여주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육명수칭호를 수여하는 제도와 체육인자격 및 급수사정제도를 들수 있다.

체육명수칭호는 체육교수훈련과 생활에서 모범이며 국제, 국내체육경기대회들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명예를 떨치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공로를 세운 체육인들에게 수여한다.

체육명수칭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명수칭호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년체육명수칭호가 있으며 체육명수칭호를 받은 체육인에게는 해당하는 체육명수증과 체육명수휘장을 준다.

조선에서는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공화국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린 체육인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 높이 내세워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면서 해당 기관들에서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을 생산하며 체육인영양공급기준에 따라 체육종목과 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하

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출판보도기관들에서 체육경기와 관련한 소식과 자료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체육인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대중속에서 체육열기를 높여줄수 있는 문예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고있다.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더욱 개선완성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타번짐에 따라 조선에서 체육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보장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 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일반적으로 환경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그에 대한 보호사업은 중요하게 깨끗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의 문화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물론 환경보호사업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경제실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있고 경제활동과 경제사업과도 련관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사업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사업을 통한 환경에 대한 사람의 권리보장은 문화적권리보장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게 되는것이다.

조선에서 환경에 대한 권리는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토지법, 유용동물보호법, 지하자원개발법, 산림법, 바다오염방지법, 자연보호구법, 도시경영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환경보호계획과 환경보호기준을 세우고 환경관리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있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먼저 세우고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환경보호를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자기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환경보호책임제와 관리담당제를 실시하고있으며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키는 원칙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토지정리는 새땅을 많이 찾고 알곡생산을 늘이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토지환경을 일신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좋은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조선에서는 일찌기 청산리의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토지정리의 본보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에 강원도토지정리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토지를 다 정리하기 위한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전개하였다.

황해북도에서 2019년에 봄철토지정리기간에만도 천여정보의 토지를 정리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이 많은 조선에서 산림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생태환경 보호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고있으며 산림복구를 전군중적인 동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재공장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하여 각지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나무모를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다.

한편 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감시통보체계를 완비하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있으며 병해충피해방지를 비롯하여 산림보호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과학기술적으로 대책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물자원보호와 강하천정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심각한 물재난과 물위기를 몰아오고있으며 생태환경과 나아가서 인류의 생명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물자원을 전망성있게 개발하고 물잡이시설물의 보수와 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조성된 물을 쓸모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시설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있으며 물길공사를 다그쳐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연환경을 일신시키고있다.

조선에서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토지

와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 환경을 개변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에 훌륭한 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강하천에 의한 토지침식을 방지하고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바다생태환경보호와 자연보호구환경보호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바다에서 자유롭게 해양활동을 벌리려는 인간의 요구가 증대되고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권리보장에서 바다생태환경보호를 특별히 중시하고있다.

바다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바다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와 예측을 정확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자원의 증식과 지속적리용의 원칙에서 어획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있으며 알쓸이터를 비롯하여 바다생물의 서식조건을 잘 보장해주고있다.

해당 수역에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와 돌넣기를 비롯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면서 가재미를 비롯한 정착성물고기들을 인공방류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2019년에 양화수산사업소에서 동해에 백여만마리의 새끼가재미를 놓아준것을 비롯하여 남포대경, 송도원수산사업소들에서 새끼명태, 새끼보가지, 새끼해삼을 십만, 수십만마리씩 놓아주어 수산자원을 적극 증식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과도한 자원채취,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금지된 어구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의 서식조건을 파괴하는 행위, 새끼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비롯하여 바다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연안 및 해상감시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엄격

히 감독통제하고있다.

환경보호사업을 맡아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자연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조선에는 오가산자연보호구, 랑림산자연보호구, 경성자연보호구, 관모봉자연보호구를 비롯하여 곳곳에 수많은 자연보호구들이 있다.

수천정보의 면적을 가진 오가산자연보호구에서만도 수백종의 식물들이 자라고있는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식물학자들은 이 신비하고 독특한 생태를 직접 보고싶어한다.

조선에서는 자연보호구와 명승지들을 바로 정하고 그 면적을 단계별로 늘이며 이 지역들에서 산업건물과 시설물들을 망탕 짓거나 지하자원,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며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것과 같은 자연보호구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행위들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구의 산과 강하천류역에 분포되어있는 동식물종류와 그 서식조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희귀한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물품종들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원림록화사업과 재자원화사업을 강화하고 자연에 네르기개발리용을 적극 다그쳐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도시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상과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기후풍토에 맞게 수종이 좋으면서도 관상적이고 환경보호에 적합한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꾸고있다.

도시록화에 필요한 화초종자와 모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계절에 따라 언제나 꽃이 피어있을수 있게 여러가지 꽃으로 꽃

밭을 조성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꾸려져있는 공원과 유원지에 녹지 조성을 잘하여 도시의 소음을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020년 4월 12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을 채택하고 폐기물, 폐설물, 도시의 오물을 리용가능한 자원으로 가공처리하여 재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극력 줄이도록 하고있다. 재자원화를 단순히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을 회수리용하는 사업으로가 아니라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녹색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로 지향시키고있는것이다.

자연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는것은 발전량이 많고 그 원천이 고갈되지 않으며 생태환경파괴가 없어 환경보호에 매우 유리하다.

조선에서는 풍력과 태양에네르기, 지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현재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조수차의 크기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며 그 자원량도 풍부한 조수력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조선에서는 환경오염방지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 생활과정에 배출되거나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먼지, 악취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세우도록 하고있다.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상은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

으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설비의 가동은 철저히 금지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단계의 건설을 진행할수 없게 하고있다.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여 바다에 내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바다를 리용하는 단위들에서 항, 부두, 포구들과 배들에 오수와 오물, 폐수처리시설들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하고있다. 오수정화장들을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량을 타산하여 꾸리고 그 시설들을 현대화하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광산침전지를 바로 꾸리고 미광이나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있다.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와 같은 문화휴식터 등에 각종 오물과 오수처리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생활용수를 철저히 려과소독하며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이 강하천과 저수지, 호수에 흘러드는것도 철저히 방지하고있다.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흘러들고 토양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감독통제기관의 역할을 높이고있다.

방사성물질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오염된 물품의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있으며 환경오염방지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도도록 하고있다.

△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문화정서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게 하는 사회생활의 한 분야이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생활을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나가려는 문화정서적요구가 실현되지 못한 생활은 참다운 인간생활이라

고 말할수 없다.

이로부터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누려나가는데서 반드시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된다.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보장에서 중요한것은 인민들에게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는것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물질적조건들이 원만히 마련되어있으며 사회발전과 함께 더욱더 훌륭하게 갖추어지고있다.

조선에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보장은 도시미화법, 공원, 유원지관리법, 동물원관리규정, 식물원관리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보다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조선에서는 현대적인 거리와 마을을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도시미화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문화정서적인 환경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에서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새 거리와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모든 거리와 마을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지향에 맞게 일신시켜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송화거리, 화성거리, 전위거리가 훌륭하게 일떠섰으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의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별 어지고 있다.

자기 일터를 훌륭하게 꾸려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문화후생시설들도 원만히 갖추고 공장주변에 갖가지 나무와 꽃들을 심어가꾸고 있다.

거리와 마을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 등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극장, 영화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건설에서 법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에는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 등이 훌륭히 꾸려져 있으며 공장, 기업소, 농장, 각급 학교들에 문화시설과 문화오락기재들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

최근 조선에서는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개건 현대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도록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맞으며 개관된 삼지연극장은 고전미와 현대미가 훌륭하게 결합되고 모든 공간의 예술화가 조화롭게 실현된 세계적인 생울림극장으로서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문예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극장들은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며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해나갈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되고 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삼지연극장에서 진행되는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참신하고 기백있는 예술공연들은 근로자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며 주체음악예술의 독특한 매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평양시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과 자연박물관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면서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나가고있으며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물놀이장들과 해수욕장, 청류원과 청류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메아리사격관 등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

조선에서는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명승지 등과 같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의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준다.

공원과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명승지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문화정서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조선에서는 이미 전국각지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을 개건보수하고 그 정상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공원과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산지식을 배우고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데 편리하게 꾸리도록 하고있다. 특히 공원과 유원지들에 화초원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민족적풍습에 맞고 시대적미감에 어울리는 휴식터들과 문화오락시설들,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을 많이 차려놓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동물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동물원관리운영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동물원의 동물사청소유지와 동물들의 서식조건보장, 시설물들에 대한 정상유지보수 등 관리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의 거점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자연박물관에서는 전시관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며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서 박물관을 더 잘 꾸려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교육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중앙동물원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먹이 및 물보장대책과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원림복화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동물원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참관자들이 그 어느때나 찾아와 웃음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식물원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식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실물을 통하여 식물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기 조국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며 문화휴식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명승지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룡문대굴, 송암동굴을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명승지들과 명소마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의 문화적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에는 이밖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도 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이로부터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서는 력사, 예술, 과학 및 미학적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모든것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국제적협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보장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민족유산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민족의 정기와 넓이 깃들여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공화국에서 민족유산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과 함께 그것을 감상하고 리용할 인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2) 인민의 지상락원

△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주는 과외교양기지들

2014년 5월 21일부터 노르웨이에서는 베르겐국제축전이 진행되었다. 세계 40여개 나라 예술단체들이 참가한 축전에서는 조선의 소편대 학생예술단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예술단성원들은 기악과 노래 《조국찬가》, 《제일 좋은 내 나라》, 《세상에 부림없어라》, 중창 《원수님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요》, 2중창 《고마운 우리 해님》, 가야금독주 《옹헤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과 여러 곡의 외국노래들을 축전무대에 올리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조선의 앞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과 주체예술의 밝은 미래를 풍만한 성량과 세련된 연주기법, 민족악기의 독특한 음색으로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노르웨이의 TV와 방송, 신문들은 이에 대하여 매일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예술계의 인사들은 조선학생예술단 성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축전행정국장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축전개막무대는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한 공연이었다. 하지만 7명밖에 안되는 조선학생예술단의 공연은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단마르크, 스웨리에, 노르웨이의 이름있는 작가, 연출가, 예술인들 수백명이 동원되어 6개월이상 준비한 축전개막공연보다 더욱 깊고 훌륭한 인상을 남겼다.

관중들모두가 조선학생예술단의 공연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자기 조국을 찬양하며 자기 제도가 제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펼쳐보인 조선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예술공연은 관중들에게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축전일정상 1회밖에 공연할수 없는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다. 다음번에 다시 와서 우리들의 아쉬움을 속 시원히 풀어주길 바란다.》

축전총국장 안데르스 베이어는 조선학생예술단의 공연은 이번 축전을 훌륭히 장식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정말 희한한 공연이다. 학생들은 짜인 안삼블과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관중을 격동시키는 그야말로 멋있는 공연을 하였다.

조선의 학생예술단은 베르겐국제축전의 가장 밝은 불빛으로 되었으며 노르웨이사람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노르웨이와 조선사이의 문화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베르겐국제축전에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에서 자라난 조선의 평범한 소년들이다.

조선에는 아이들의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과외교양기지들이 전국의 곳곳에 서있다.

그중에서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조선인민들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 체육, 예술을 비롯한 각이한 부분의 소조실들

이 있어 누구든지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재능을 꽃피울수 있다.

△ 축전무대를 훌륭히 장식한 조선의 학생들

2015년 3월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시에서는 제25차 국제청소년예술 축전 《201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새로운 이름들》이 열렸다.

축전에 참가한 모란봉제1중학교의 학생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꽃피운 예술적재능을 다채로운 예술종목들과 미술작품들에 담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축전참가자들과 수많은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조선의 새세대로 자라나는 명랑하고 행복에 넘친 모습을 높은 예술적기량에 담아 공연무대에 펼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오고 환호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축전에서는 조선학생들에게 최우수상과 1등상들이, 교원에게는 교육자상이 수여되었다.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은 조선의 뛰어난 재간둥이들이 축전에 참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의 훌륭한 교육정책에 의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의심할바없이 축전의 최고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조선의 앞날의 예술은 이러한 재간둥이들이 있어 더없이 창창할것이다.》

로씨야국제자선기금 《노비에 이메나》 원동지부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학생들의 흠잡을데 없이 완벽한 공연은 이번 축전을 훌륭히 장식하였다.

특히 김금송학생의 장고독주와 김철미학생의 민족무용은 축전무대를 들뜨다놓으며 관중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능숙한 연주와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틀동을 보면서 조선의 높은

예술교육수준을 엿볼수 있었다.

김금송학생이 받은 최우수상은 축전참가자들과 하바롭스크시민들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이다.

뛰어난 예술적기량을 소유한 조선의 학생들이 앞으로도 전통적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친선의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조선의 교육제도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 심오한 역사적의미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월남을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때 월남의 호지명주석은 위대한 수령님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물음을 제기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것이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 학생들한테서 돈을 받고있는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교복도 낮은 값으로 공급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도 전체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제도는 없다.

조선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령락된 나라를 재건하던 1950년대 후반기에 벌써 국가가 옷을 지어 공급하는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되고있다.

전후에 학생들에게 교복을 낮은 값으로 팔아줄 때 있는 일이다.

그때 평양의 어느한 지구에 남편없이 홀로 다섯아이를 데리고 살고있는 녀인이 있었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벌어먹이자니 그들에게 옷도 제대로 해입히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교복을 낮은 값으로 팔아줄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시책에 의하여 그 아주머니도 다섯아이에게 새옷을 입히게 되였다. 그 아주머

나는 아이들이 새 교복을 받은 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새옷을 해주시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김일성원수님이시라고 하면서 아버지원수님께 인사드리라고 말하여 온 집안이 감격하여 울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 많은 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출하면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각자가 상점에서 필요한 천을 사다가 해입어도 되겠는데 왜 국가가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어입히는가, 무가로 옷을 해입히는데서 생기는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는가고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의 인사들이 이따금 자신께 물음을 제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만나던 때의 사연을 말씀해주곤 하였다고 쓰시였다.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 격분과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때의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셨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옷을 해입히는 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시였다.

자본주의나라의 정객들이 공화국정부의 시책속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역사적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정적계산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고찰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나무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피한 리윤추구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 그들의 재정적계산의 각도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담겨진 후대들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리해하기에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조선에서는 이미 해방후부터 국가가 학생들에게 교복을 거저나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해입히는 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관철하여왔다.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였던 1950년대 후반기에 벌써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 공급하는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안산에서의 고뇌를 체험한 조선혁명가들만이 창조할수 있었던 하나의 기적이였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는데 많은 돈을 지출한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조선로동당과 국가는 더 큰 기쁨을 느끼고있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조선로동당과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 12월 27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서한에서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고, 더 담차고 더 활기있게 자라야 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아버이를 모시여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인민적시책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하고있다. 이러한 공급체계는 극난한 조건에서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한시도 중단없이 가동하고있으며 나날이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악성비루스에 의한 전파로 온 세계가 대동란을 겪던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도 어린이들에게만은 젓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뜨거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현재 수도 평양만이 아닌 산골의 어린이들도 매일 젓제품을 마시며 조국의 밝은 래일을 떠받들어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이렇듯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쟁의 그 나날 마안산에서 헌옷을 걸치고 굶주리며 양기를 잃고있는 아동단원의 모습에서 굳게 다지신 결심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되어 현실로 구현되고있으며 그것은 조선로동당에 의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것이다.

△ 소박한 이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 수용능력에 비해볼 때 너무도 소박한 이름을 가지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마다 여기야 종합체육관이라거나 혹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해야 적중하다고 저저마다 이야기하고있다.

실로 문수물놀이장은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기능회복원,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보기 드문 물놀이장이다.

10만여㎡이라는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물놀이장.

물미끄럼대만도 10여개, 크기가 서로 다른 10여개의 수조들,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야외체육시설들, 독특한 치료효과를 내는 9개의 싸우나들...

문수물놀이장은 다기능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물놀이장이다.

물놀이시설과 수조들만 놓고 보아도 상상을 초월할만큼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이다.

높이가 근 20m나 되는 아찔한것과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단순한것, 물매가 가파로운것과 완만한것, 주로가 긴것과 짧은것, 고무배를 리용하여 내리는것과 맨몸으로 내리는것을 비롯하여 각양각태의 물놀이시설들과 수영수조,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있어 그 어떤 형식의 물놀이도 다 할수 있는 수조들...

야외와 실내의 물놀이시설들을 한번씩 다 리용하고 매 수조에 다 들어가보자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물놀이시설도 다양하고 종합적인데다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을 할수 있는 운동시설들도 그췌히 갖추어져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실내체육관이 따로 있는데 이곳에는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턴장 등이 꾸려져있고 근육단련에 좋은 탄력망과 벼랑타기시설도 있다.

야외물놀이장에서 첫눈에 안겨오는 급강하물미끄럼대, 강과 바다가 엇갈리는듯한감이 드는 물미끄럼대, 쾌속정의 선창에서 날바다를 헤쳐가는 쾌감을 맛볼수 있는 물미끄럼대, 끝과 갈래를 알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듯한 아찔한감을 주는 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이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물미끄럼대들...

운동기재실들에도 다리운동, 달리기운동, 등운동, 허리운동, 한손운동, 두손운동, 아령운동, 계단오르기운동, 선자세운동, 당김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운동에 필요한 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야외에도 롱구장, 바드민턴장, 로라스케트장 등 각종 체육장들이 있다.

이곳은 말그대로 안팎으로 희한함과 화려함의 최절정을 이룬 아름답고 황홀한 물의 궁전이다.

수영복차림으로 다양한 물놀이는 물론 갖가지 체육종목을 즐길수

있는 요란하고 희한하며 다기능화된 물놀이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화려함에 비해 문수물놀이장이라는 이름이 너무 소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소박한 이름속에 인민을 위하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크나큰 은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문수물놀이장에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로인이건, 아이이건, 남성이건, 녀성이건 그 누구나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있다.

《보십시오. 한 수조이지만 바깥부분은 3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게 알고 그 안쪽은 어머니들이 리용할수 있게 수조가 깊습니다. 어찌면 자식들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의 심정까지 것처럼 속속들이 헤아려주었는지...》

《전 벌써 두번째입니다. 자꾸만 오고싶은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문수물놀이장에 꼭 가보라기에 동부인하여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어찌나 훌륭하고 좋은지 떠나고싶지 않소. 세상에 이런 물놀이장이 또 있겠소. 정말 백점만점이요.》

《문수물놀이장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다. 보기만 해도 희한한 물놀이시설에서 물놀이도 다양하게 하고 운동기재실에서 여러가지 운동도 마음껏 하였다. 실내체육관의 탄력망에 올라 없는 재간에 앞으로 돌기, 뒤로 돌기와 같은 재주넘기까지 하여 많은 사람들을 웃기였다. 소금싸우나, 마노싸우나를 비롯한 특색있는 여러 싸우나들에도 빠짐없이 들어가보고 안마실에 가서 안마까지 봉사받았다. 행복에 겨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가슴뜨겁다.》

《안마사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안마를 받으니 어릴 때 등산갔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정말이지 문수물놀이장은 인민들의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문화정서생활기지입니다.》

《세월이 하도 좋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바다물이 사람들을 찾아오는군요.》

△ 로동자궁전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조선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산이 우선인가,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에서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을 우선시하는것이다.

해방후 조선에서 로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철로를 폭파한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계기들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한다면 해방직후 나라의 강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원철로를 통채로 폭파해버린것은 그것이 인민들의 생명에 위협으로 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전에는 우리 로동자들이 나라가 없었던탓으로 생명을 잃으면서도 위험한 원철로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조국이 해방되고 로동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오늘에야 무엇때문에 그들을 이런 위험한데서 일하게 하겠습니까. 강철도 로동자대중을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

해방직후 산업국장사업을 맡아본 책임일군은 당시 강철이 매우 귀하다보니 성진제강소 원철로를 살려 강철을 다문 몇t이라도 생산하려고 하였다. 그 일군으로부터 성진제강소 원철로를 살려 강철을 생산하려고 한다는 전화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자신은 그것을 폭파해버릴 생각이라고 교시하시면서 성진제강소 원철로를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다.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을 위해 나라에 하나밖에 없던 원철로를 폭파해버릴데 대한 중대결단은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놀라운것이였으나 로동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는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것이였고 그후 시종일관한 정책으로 되였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수직로를 회전로로 개조한것이나 8월8일광산의 흑연건조로를 전기로로 개조한것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로동자들의 생명안전과 훌륭한 로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오늘 새로 일떠선 로동자궁전, 원산구두공장의 전변된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로동자궁전으로 일떠선 원산구두공장은 이전까지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로동자들의 일터였다.

오늘 전국적인 표본공장, 멋쟁이공장으로 새로 일떠선 공장을 참관하는 많은 사람들은 달라진 공장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다.

배풍기들이 기운차게 돌아 먼지와 고무냄새 하나없는 깨끗하고 알뜰한 작업현장, 고급면담실처럼 꾸러진 사무실들과 원격교육실,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이 그쯘히 갖추어진 편의봉사시설이며 크지 않으면서도 쓸모있게 꾸러진 종업원식사실, 로동의 실참에 체력단련을 할수 있게 훌륭히 꾸러진 배구장과 바드민톤장, TV, 녹화기, 세탁기, 탈수기에 최신가구와 고급침대를 갖춘 호텔과도 같은 로동자합숙...

그 어디라 할것없이 로동자들의 편리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입에서는 절로 로동은 노래로세 기쁨이로세라는 흥겨운 노래가 울려퍼지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로동자들의 로동조건보장뿐 아니라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우선적으로 집행되고있다.

이것은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로 꾸러진 행복의 보금자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평범한 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보장해 주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국가부담으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풍치수려한 대동강과 멋들어진 조화를 이루고있는 상쾌한 색깔의 타일로 장식된 외벽과 우리를 보라고 웨치는듯 나란히 잇닿아있는 3개 호동의 7층짜리 건물.

합숙의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복도며 홀, 호실과 목욕탕, 상점과 식사실, 도서실과 미용실 등 처녀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너무도 정갈하고 섬세하며 편하게 꾸러진 합숙의 모든 곳, 모든 시설들, 호실의 따스한 이부자리, 세면장과 전실의 비품들 그리고 층마다 설치된 대형액정TV와 화면반주음악기재며 복도들에 놓여진 의자에 이르기까지...

지열난방체계가 도입되고 옷장, 책장, TV를 비롯한 가구비품들이 그쫘히 꾸러진 아담한 호실들과 한번에 수백명을 수용할수 있게 꾸러진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식당, 랭료리보관고, 온료리보관고, 식기소독기, 식기세척기, 전기빵로, 얼음기계, 떡기계, 쌀이는 기계 등 모든 주방설비들이 그쫘히 마련되어있는 나무랄데 없는 주방, 건식짜우나, 습식짜우나, 개별샤와칸이 갖추어진 1호동과 3호동의 목욕탕과 미용, 미안봉사를 받을수 있는 미용실, 아담하게 꾸러진 상점.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러진 합숙의 량만넘친 생활은 또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것인가.

그들의 고향집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았다. 자기들 바로 가까이, 일터와 나란히 있었다.

그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합숙에 들어서면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이 스며있는 정다운 고향집에 들어서는것만 같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아니 고향집보다 더 다심한 은정이 합숙의 이르는 곳마다에 스며있었다.

하기에 이곳 여성로동자들은 스스로없이 웨친다.

이렇게 희한하고 황홀하게 꾸러진 이 집이 바로 우리 로동자들의 합숙이라고.

△ 복을 안겨주는 《집》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로, 타고나는 복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에 굳은 음식을 깨물면 이발이 든든해진다는 풍속도 전해지고있다.

오늘 류경치과병원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과의료봉사를 받고 이발건강을 되찾고있다.

류경치과병원은 2014년 10월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병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최신식의료설비들은 물론이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위생문화적이며 정서적인 치료환경이 펼쳐진 류경치과병원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병원에는 좋다는 치과설비가 거의다 있다.

이동식렌트겐설비와 초음파치석제거기가 달려있는 수십대의 현대적인 최신식치과종합치료기며 최신식다목적치과촬영기, 보철설비들...

조선인민은 너무도 평범하게, 지어는 응당한것으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받고있지만 치료에 리용되는 설비들의 값이 얼마인지, 세계적으로 볼 때 치료비는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이 병원의 최신식다목적치과촬영기 한대값이 얼마인가를 안다면 조선인민들은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것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추세에 맞게 선진기술을 도입한 임플란트치료실을 비롯한

모든 치료실들에는 환자치료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치과종합치료기사이마다 가림막도 설치되어있고 각종 치료도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훌륭히 꾸려진 치과외과와 치과내과, 치과렌트겐과, 보철과도 그렇지만 어린이치과에 들어서면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온다.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여러가지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진 어린이놀이장이 꾸려져있고 현관에 들어서면 은근하면서도 밝은 조명빛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답게 반기여 맞아준다.

앉으면 폭신한 의자요, 바라보면 친근한 상식소개판이 눈길을 끄는 대기실들은 또 얼마나 아늑한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리용할수 있게 여러가지 치과위생도구들과 약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봉사해주는 상점과 약국도 특색있다.

치료를 받고 나서면 여러가지 나무와 꽃관목이 우거지고 사철 푸른잔디밭이 펼쳐진 공원같은 야외휴식터가 기다린다.

참으로 환경도 제일, 설비도 으뜸, 정성도 최고인 류경치과병원이 언제나 자식을 부르는 어머니의 두팔처럼 사랑의 큰 문을 활짝 열고 조선인민모두를 부르고있다.

정녕 류경치과병원은 평범한 인민들모두에게 복을 안겨주는 사랑의 집이다.

복을 안겨주는 집, 이 말속에 조선사회의 인민적성격과 인민의 참다운 인권향유가 함축되어있다.

△ 멋쟁이휴양소에서의 《신혼생활》

조선의 경치 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한쪽의 그림같이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또 하나 솟아났다.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조형화, 예술

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의 부부과학자들은 조선로동당에서 마련해준 이 멋쟁이휴양소에서 《신혼생활》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호텔보다 낫습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류달리 이채롭게 안겨오는 모습은 청춘기를 되찾은듯 활력에 넘쳐있는 과학자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이다.

이들속에는 운동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강한 타격과 재치있는 반공격으로 신이 나게 탁구와 바드민턴경기를 하는 과학자부부들도 있고 실내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과학자부부도 있다.

바라볼수록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휴양소에서 행복의 최절정에 올라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과학자부부들의 다채로운 생활은 정녕 끝이 없을상싶다.

모두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이들은 이런 희한한 금방석우에서 부부휴양을 하니 마음도 젊어지고 며칠사이에 살결이 다 고와졌다고, 사람마다 우릴 보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고 만날적마다 성화를 먹이군 한다며 행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50대를 가까이하는 과학자부부의 《신혼생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과학자부부들이 있는 방들을 《복덕방》이라고 부르고있다. 휴양을 온 과학자부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5호동에서 함께 지낸다.

청춘시절도, 가정의 행복도 고스란히 바치며 애국의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조선의 과학자들이 세상에 들도 없는 희한한 휴양소에서 삶의 참된 보람과 긍지를 한껏 느끼고있다.

자기의 생일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의 생일날에도 머나먼 출장길에서 축하의 전화를 걸어주는것을 레사롭게만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이 명절이나 휴식날에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들놀이를 나갈 때에도 실험실이나 생산현장에서 조국번영을 위하여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하던 조선의 부부과학자들이 부부식탁에서 남편과 마주앉아 아기자기하게 식사도 하고 저녁마다 휴양소의 구내를 따라 부부가 산보길에 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혼생활이 아닌 《신혼생활》이다.

사랑의 휴양소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과학자도 누릴수 없는 인생의 락을 누리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부부과학자들뿐이겠는가.

연회장이며 식사실, 목욕실, 실내물놀이장, 치료실, 리발실, 미용실, 탁구판들은 물론 협의실, 록화물방영실, 전자도서실, 당구장, 사진봉사 장소들이 그췌히 꾸려진 휴양소.

종합봉사건물을 중심으로 나무들사이에 듽슴듬슴 자리잡은 9개의 호동들로 뻗어나간 800여m의 외랑.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청석을 깔아놓은 구내도로와 산보길, 호동들에서 직접 호수가로 내려갈수 있게 만들어준 자연미나는 지름길, 다용도야외운동장...

휴양소에 구축된 지열랭난방체계는 또 얼마나 좋은가.

안팎으로 절경인 휴양소는 그야말로 복덕방이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누구나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사랑속에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래일의 꿈과 리상을 더 희한하게 펼쳐가고있다.

과학중시가 현실로 구현된 조선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세월의 끝까지 로동당만세를 높이 부르며 세계를 압도하는 과학연구성파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진군의 발구름소리만을 높이 울려갈것이다.

△ 의사담당구역제

조선에서는 1960년대부터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다른 나라들에서 개인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사들을 채용해서 의료봉사를 받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주민세대들이나 직장들을 맡아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의 기본조직형태는 의사들이 일정한 수의 주민세대들을 담당하는 의사호담당제이며 여기에 직장(갱)담당제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배합하고있다.

호담당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진료소단계에서 책임진다.

해당 진료소는 자기 담당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봉사사업과 위생방역사업을 진행한다.

의사들은 매 주민당 건강관리부를 가지고있다.

이 관리부는 태어나서부터 건강상태, 질병상태, 치료상태가 기록되어있어 해마다 부피가 늘어난다.

아침에 의사들은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한다.

오후에는 담당지구에 나가 치료 및 예방사업을 하고있다.

분기에 한번씩 검진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숨기거나 모르고있던 병까지도 찾아내어 등록하고 치료대책을 세운다.

조선에서는 의사의 수를 늘여 담당주민세대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어느한 탄광에서 있는 일이다.

그때 탄광에서는 갱입구에서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사업이 조직되었는데 탄부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가운데는 3명의 의사도 있었다. 사연인즉 현장치료대로 동원된 의사는 작업중 팔굽을 다친 탄부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따라나오고 탄광병원의 의사는 그 치료는

자기 몫이라고 하면서 달려왔던것이다. 게다가 호담당의사까지 검진을 받으려 제때에 병원으로 오지 않은 탄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탄부의 담당의사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온 나라의 곳곳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책임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회, 사랑과 정성을 본분으로 새겨안은 미더운 보건일꾼들이 가꿔가는 아름다운 화원속에서 평범한 영예군인들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것이다.

직장담당제는 큰 공장, 기업소의 진료소들에 있다.

△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환경보호는 오늘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류공동의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을 떠난 사람의 생존과 건강증진, 문화적인 생활조건이란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과제로 나선다.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을 보호증식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적인 애국사업이 바로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 환경보호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있다.

국가는 인민의 건강과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정책작성에서 환경보호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비롯한 법령들은 생태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대한 계획작성에서 그 대상이 주변환경에

미칠수 있는 영향들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린다.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 조업하는 공업대상들에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준다.

공장, 기업소와 공공건물들, 주민지구들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잡이, 먼지잡이장치들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대기와 수질상태를 검측하고 예보해주는 감시초소들이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있다.

환경보호사업에서 기본은 나무를 많이 심는것이다.

1952년 3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해 수많은 산림이 불탄것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산림을 많이 조성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날을 조선에서는 식수절로 제정하였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전국적규모에서 나무심기가 진행되고있다.

동시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자연보호구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산림, 지하자원보호기간, 유용동물보호기간 등이 제정되어 자연보호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특히 백두산지구, 구월산지구, 묘향산지구, 칠보산지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됨으로써 나라의 생물다양성보호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평양시교외에 위치하고있는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양묘장들이 꾸려져있어 원림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는 구호를 들고 국토환경보호모범군칭호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국토관리총동원월간을 제정하여 온 나라가 떨쳐나 나무를 심고 강하천정리사업들을 진행한다.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나라의 환경보호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연구원에서는 최근 대기중의 아류산가스농도를 자동측정하여 현시, 기록, 전송할수 있는 기구를 자체로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하였다.

해마다 국토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학술토론회가 진행되어 환경보호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선진적인 환경보호기술이 널리 보급되고있다.

또한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이 설립되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며 생물다양성과 물자원, 대기환경,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그의 지속적개발리용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및 물질적후원사업이 보다 강화되고있다.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는데서 조선자연보호련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련맹에서는 식수절과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산림, 지하자원보호기간, 유용동물보호기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대중선전교양을 적극적으로 벌려 자연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대로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를 위한 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또한 식물보호협회, 동물보호협회 등 부문별협회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적가치가 높고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조선의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널리 퍼치기 위한 연구사업, 번식촉진제를 개발하여 위기에 처한 희귀동물들을 서식지밖에서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보호련맹을 비롯한 국제기구, 단체들과의 대외활동도 적극 벌려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 푸른 숲을 가꾸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가는 조선의 생태환경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4. 특정한 집단도...

1) 특정한 집단이 보장받는 권리

정치적권리, 경제문화적권리, 인신 및 사생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 특정한 대상의 권리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는 여성과 아동, 노인자, 장애인, 외국인, 피난민, 토착민, 소수민족 등이 속한다.

특정한 대상의 권리보장은 해당 국가사회에서의 인권보장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의 권리가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없이는 원만히 보장될수 없는 권리라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사람)에 대한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의 특정한 대상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에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노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장애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등이 있다.

△ 여성의 권리보장

여성은 남자들과 똑같은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의 지위와 존엄, 인격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오랜 기간 인신적으로 예속되어있었으며 사회정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불평등관계에 있었던것과 관련되어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성천시사상

이 지배하고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의연히 무권리속에서 온갖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녀평등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여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있습니다.》

조선에서 여성의 권리는 여성권리보장법과 사회주의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여성의 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정치적권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선거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2019년 3월 10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립후보자들중 많은 여성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여성들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관리에 참가할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는 여성일군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여성간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록하며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여성들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여성들의 조직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들이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며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도 자기 조직에 속한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한다.

조선에서는 여성의 로동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모든 여성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수 있게 하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아늑하고 정갈한 침실과 치료실, 도서실, 식사실, 료리실습장 등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로동자합숙을 건설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로동생활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는다. 그리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문학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있으며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조선에서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건강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여성들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여성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여성들이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여성들에게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한다.

2012년에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비롯한 여성질병들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여기에는 몇개 나라밖에 없다는

다목적렌트젠과 최신형의 CT, 초음파진단, 심전도설비들이 있다. 특히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남녀평등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며 중요한 법적요구이다.

현재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평등하게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고 많은 국가적인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적극 발전시키고있다.

△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보장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아동권리보장의 중요성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아동로동의 금지 및 철폐조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문건들에서는 아동이 지니고 행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선에서는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인 아동을 중시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아동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아동의 권리는 아동권리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세쌍둥이에 대한 국가적보호규정, 유치원규정, 육아원규정, 애육원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들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조선에서 모든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조선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정치적, 민사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조선에서 모든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공화국국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모두 공화국국적을 가진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 해당 거주지의 사회안전기관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증을 발급받으며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는다.

조선에서 모든 아동은 소년단과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다.

조선소년단은 조선소년들의 대중적인 주체형의 조직으로서 1946년 6월 6일에 창립되었다. 조선소년들은 소년단생활을 통하여 높은 정치사상성과 함께 풍부한 지식,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소유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

조선에서 모든 아동은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리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는데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 해당 기관들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자기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해준다.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 아동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조선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문화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교육분야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등을 보장해준다.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며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만들어 보급해주고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부담으로 키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없는 아동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보육교양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육아원과 애육원들에는 놀이방과 잠방, 세면장과 식당, 운동장,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 리발실과 치료병동, 교양실을 비롯하여 아동의 생활과 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외진 산간마을과 작은 섬들에 분교들을 내오고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생들과 똑같이 해마다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불편없이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있다.

보건분야에서 모든 아동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조선에서 아동은 무상치료제의 최고혜택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어린이들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여주며 필요한 곳에 전문적으로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및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옥류아동병원은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 여기에는 화상진단과 심장수술과 같은 각종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최첨단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아동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학습실과 놀이장, 휴식터까지 다 꾸려져있다.

어린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세쌍둥이와 그 어머니에게는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도록 한다. 특히 해당 지역 병원에서는 학령전 세쌍둥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분기 1차, 학령기 세쌍둥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년 2차 조직하고 치료대책을 세우며 의약품관리소에서는 세쌍둥이들의 치료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영양제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문화정서생활분야에서도 모든 아동은 전국각지에 훌륭하게 건설된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희장, 동물원, 식물원 등에서 충분한 휴식과 정서생활을 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가정에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모든 아동에게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속에서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자기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과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돌려진다.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와 같은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하는데 그러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하는 사람은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아동의 리익보호를 위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상속권은 철저히 보호된다.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가정에서 아동을 가진 부부의 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으며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조선에서는 사법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 준다.

법기관들이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하며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단계에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부모들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들에게 더욱더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이 마련되도록 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인민보건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조치와

법적대책을 세우고있다.

△ 년로자의 권리보장

조선에서 년로자의 권리보장사업은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년로자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년로자의 권리는 년로자보호법과 년로자보호법시행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년로자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에 따라 세워진 년로자 권리보장제도는 년로자들이 충분한 부양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정치생활은 물론 그들에게 남아있는 로동능력에 맞게 로동생활에도 참가하고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욱 꽃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년로자들의 부양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년로자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는 부양문제는 년로자들의 권리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조선에서 년로자들에 대한 부양은 가정부양과 국가적부양이 결합

되어 보장되고있다.

가정부양과 관련하여 년로자의 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 손자녀 그밖에 형제, 자매가 되며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도록 돌보아주고있다. 이와 함께 년로자의 요구와 해당 공민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부양의무자가 아닌 공민도 년로자를 부양할수 있게 하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것이 전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로 모시는 미풍이 널리 발양되고있다.

최근에만도 전쟁로병들의 친자식이 되어 그들의 건강은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극진히 보살펴주고있는 미풍의 소유자들이 련이어 배출되고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년로자들을 국가가 부양하고있는데 국가부양기관들에서는 년로자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고 돌봐주고있다.

평양양로원, 남포양로원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양로원들에서 년로자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가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양로원에는 늙은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침실이 따뜻한 온돌방과 침대를 놓은 방으로 잘 배합하여 꾸려져있으며 보양생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할수 있게 터밭과 수경온실도 있다. 이와 함께 리밭실, 미용실, 목욕탕, 치료실을 비롯한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들과 도서실, 운동실, 오락홀도 보양생들이 문화정서생활과 몸단련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잘 꾸려놓았다.

년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호에 맞는 생활용품들을 생산공급하고있으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지불하여주며 생활상안정과 편리를 도모하도록 무장애환경을 보장하고 개인

재산소유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년로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준다.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육체적담보이다. 더우기 년로자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안정되고 행복한 여생을 누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년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관할지역안의 년로자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에 년로자들을 위한 전문병원 또는 전문과들이 조직되어있으며 여기에서 로인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년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에 복무하고있다.

년로자들에 대한 치료에서는 현대의학과학기술과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으며 부양의무자들이 년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온갖 성의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년로자보호기관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년로자를 위한 대중체육활동을 조직하고있다. 살림집구역과 공원, 놀이터들에 체육기재와 로인건강회복치료기구들을 설치하여주고 정상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90살부터 100살이상의 장수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장수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으며 그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에서는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조선에서는 년로자들에게 문화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이 즐겁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있다.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년로자를 위한 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체육오락기재와 회복치료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며 전쟁로병과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종합문화봉사시설들을 도처에 꾸려놓고있다.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하게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문수기능회복원,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도처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고있는 인민들속에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 년로자들의 모습을 수많이 찾아볼수 있다.

년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문화오락시설과 기재, 회복치료기구를 보장하여 그들이 공원, 유원지, 낚시터, 놀이터, 명승지 같은 문화휴식장소에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에서는 년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마다 봄과 가을 또는 의의있는 날들에 휴양, 료양, 견학, 관광, 탐승 같은것들을 조직하고있다.

국가적명절이나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년로자들을 위한 체육오락, 예술활동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한다.

《국제로인의 날》인 10월 1일을 맞으며 해마다 전국각지의 극장들에서는 년로자들을 위한 축하공연무대가 펼쳐지고 유원지, 공원들에서는 장기, 윗놀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며 급양망과 편의봉사시설들에서는 특색있는 봉사를 하여 년로자들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년로자의 사회활동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년로자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년로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년로자들의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선거에 대한 권리와 신소청원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정치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여러 부문법들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권리와 언론, 출판에 대한 권리, 신소청원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정치적권리가 보장되고있는데 여기에서 년로자들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2019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참가하였으며 선거된 687명의 대의원중 나이가 60살 이상인 대의원들의 수가 31.3%를 차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 따라 남녀 60살이상의 국민이 년로자라고 볼 때 60살이상의 대의원수는 조선에서 년로자들도 선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년로자들이 강연, 담화, 강의, 전습, 창작, 예술활동 등 여러 형태의 사회활동에도 자기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연령,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년로자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있다.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년로자들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고귀한 혁명전통과 민족의 력사와 문화, 앞선 세대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 같은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며 사회활동에 참가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표창을 수여하고있다.

조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이러한 권리보장과 함께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우대하고 전사회적으로 년로자들을 도와주고 존경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는 사업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준다.

조선에서는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공로자와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특히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들로 내세우고 적극 우대해주고있다.

최근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전승절경축행사는 조선에서 전쟁로병들을 얼마나 중시하고 내세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전쟁로병보양소들이 훌륭히 일떠서 전쟁로병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나라와 인민앞에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적에 따르는 보조금과 사회보장연금, 우대금을 받는다.

년로자권리보장에서 사회적으로 년로자를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년로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그들을 도와주고 존경하는 기풍은 해당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와 풍모를 가늠하게 하며 년로자권리보장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인자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년로자들을 온 사회가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국풍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미풍교양이 강화되는 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년로자들을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나가도록 관심하고 도와주고 존경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로병, 영예군인의 친아들딸이 되고 국가적명절은 물론 일상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전투위훈담도 듣고 노래와 함께 혁명적랑만과 웃음으로 따뜻이 고무해주면서 보약과 영양식품,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어 그들이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건강한 몸으로 로당익장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학교들에서 전쟁로병,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널리 조직하여 학생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고있다.

△ 장애자의 권리보장

일반적으로 장애자란 장기적인 육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여러가지 인위적장벽들과 겹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에는 시력장애자, 청력장애자, 언어장애자, 지체장애자, 지능장애자 등이 있다.

장애자권리보장문제의 중요성으로부터 장애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문서들이 작성되고 그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나라들의 노력도 강화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고 장애자들을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에서 장애자의 권리는 장애자보호법과 장애자보호법시행규정, 맹학교, 룡아학교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과 규정에 따라 세워진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 인민이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성의껏 돌봐주는 고상한 미덕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

업이며 장애자의 권리보장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류형별로 등록하며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들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장애자에 대한 전문적인 회복치료와 함께 장애의 원인, 발병과 관련한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지능장애어린이들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기능회복, 과학적인 보육교양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연구기관인 동시에 전문회복치료기관이다.

장애자회복치료에서는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이도록 한다.

조선에서는 보건부문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하반신마비로 고통을 겪던 한 원아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한것과 같은 아름다운 소행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있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와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들의 생산공급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을 장애자권리보장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각종 사고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철저히 막도록 한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 준다.

교육에 대한 권리보장은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는것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에서 학령전장애자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며 교육기관에서는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학령장애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중등 일반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은 장애자들가운데서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학에 추천하여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고있다.

장애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장애자들의 특성에 따르는 특수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장애자의 학력, 나이,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여러 직업학교들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장애자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고있다. 시력장애자들을 비롯한 장애자들을 위해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국가부담에 의한 무료교육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모든 장애자들은 체육, 예술,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조건과 환경을 보장받는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에서는 장애자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장려하고 다양하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한다.

체육지도기관은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며 그들이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다.

장애자체육협회는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며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

고 발전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문화지도기관들도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예술협회를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장애자예술소조를 조직운영하며 장애자들속에서 예술인인재를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예술전문훈련을 주는것을 비롯하여 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희망을 꺾어워주고있다.

언제인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을 관람한 프랑스의 한 인사는 《조선의 장애자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고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것이 놀랍기만 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너무도 감동되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이번 공연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장애자들이 제한없이 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출판보도기관들은 장애자들을 위한 출판물을 국가의 부담으로 편집발행하고있다.

특히 《국내장애자의 날》인 6월 18일과 《국제장애자의 날》인 12월 3일을 맞으며 해마다 각지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 오락경기들과 문화행사들을 다채롭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장애자들의 높아지는 문화생활요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로동에 대한 권리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준다.

장애어린이에 대한 로동은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이상의 장애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아래로 정해져있으며 그들이 로동과 휴식을 옹게 배합하도록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공로있는 장애자들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국가의

부담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들에게는 보조금을 준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에서 장애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들의 권리보장제도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제76조에서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제하고있으며 장애인보호법 제7조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고있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하고있다.

노동에 대한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만 놓고 보아도 거기에는 노동시간과 노동정량의 알맞춤한 제정, 추가적인 노동보수제의 실시, 노동생활조건외의 원만한 보장,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 등이 있다.

영예군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노동시간을 정하며 영예군인들에게는 일반노동정량보다 20% 낮은 노동정량을 적용하고 법정노동시간보다 줄어든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주고있다. 영예군인들에게는 매일 일정한 량의 영양제를 공급해주며 살림집을 비롯하여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해마다 정기휴가외에 보충휴가를 주며 매달 국가로부터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영예군인안해들에게도 일정한 액수의 간호보조금이 지불된다.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 특별히 장애가 심한 영예군인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료양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달천영예군인료양소와 같은 영예군인료양소도 특별히 꾸려놓고 운영하고있다.

이밖에도 영예군인들이 노동생활과정에서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락

천적으로 생활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문화후생조건보장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특히 영예군인공장에서 영예군인들의 생활보장과 생산활동에서 지장이 없게 사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영예군인공장들에서는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특전자금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영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보조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영예군인들에게 필요한 교정기구(보조기구)는 국가부담으로 공급된다.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며 내세워주는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이 훌륭히 확립되어있다. 그가운데는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할 결심을 가지고 그들의 안해가 되고 남편이 되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에 날마다 꽃피어나고있다.

장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며 법적요구이다.

조선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장애자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내세우며 도와주도록 하고 그들에게 국가적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2) 헌신적인 사랑속에서

△ 여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이상국

《한 서방인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고싶다고 했다. 그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여성으로 태어나고싶기때문이다. 조선이 야말로 여성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여성의 존엄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여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이상국이다.》

이것은 어느한 외국의 인사가 조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피력한 내용의 한 부분이다.

그는 아직까지 세계의 절대다수 여성들이 남녀불평등과 무권리속에 여전히 《인형의 집》의 노라나 《노뜨르담대사원》의 에스메랄다, 《동백꽃아가씨》의 마르그리트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에 대한 첫 방문시 나는 지방도시의 한 피복공장을 참관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많은 공장을 보고싶다는 나의 요청이 수락된것이다.

공장에 도착하니 나이 지숙하고 세련미가 풍기는 현숙한 여성이 나를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 여성은 공장의 지배인이였다.

어떻게 되어 여성이 큰 공장의 지배인으로까지 되었을가 하는 호기심이 나를 부쩍 끌어당겼다. 공장참관은 그 여성에 대한 취재와도 같은것이였다. 공장의 가는 곳마다에서 그 여성이 걸어온 자욱자욱을 느낄수 있었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일할 나이가 된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로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권리가 법적으로 규제되어있다는것이였다. 하여 평범한 로동자의 딸인 그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망대로 이 공장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뗐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기능공양성과정과 대학과정을 마쳤으며 작업반장, 직장장

을 거쳐 공장의 지배인으로까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공장의 력사와 함께 흘러온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부가 그 녀성의 얼굴에 한껏 비껴있었다.

국가가 마련해준 직업을 가지고 거의 한생을 일해오면서 한개 공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사실 꿈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왔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려는 소박한 소원마저도 5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이루지 못하고있는 나에게는 생각지도 바라지도 못할 인생길이기때문이었다.

녀성로동자들이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생산현장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루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며 과학기술보급실에 앉아 원격대학교육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꾸밈없는 진실임을 알수 있었다.

그날 나는 공장의 탁아소와 유치원도 돌아보았다. 녀성로동자들이 아이들에 대한 근심걱정이 있을세라 보육교양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세 자식을 낳아 키운 어머니인 지배인이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나올수 있었고 지배인도 될수 있었는지 리해가 되었다.

유치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안 일이지만 조선에는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나라의 곳곳에 탁아소, 유치원이 세워져있으며 특히 녀성종업원이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는 전속탁아소와 유치원을 꾸리도록 법화되어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탁아소, 유치원 원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육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뿐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도 의무화되어있었다. 나는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평양산원에 전문과를 내오고 유선질병들에 대한 치료와 연구사업을 해왔다.

2012년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훌륭하게 일떠서면서 여러개의 전문과들과 실들이 나오고 그 력량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한으로 앞당겨 올것입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을 몸소 받기 하시고 설계도면까지 친히 보아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마음을 많이 쓰시였다.

연구소에는 유선질병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여러 치료실들과 수십개의 입원실들이 꾸려져있다. 또한 수술실뿐 아니라 수술후 치료를 받게 될 집중치료실도 손색없이 꾸려져있다.

어디를 둘러보나 황홀하면서도 마치 궁전같은 집에 들어선듯싶게 아늑한 느낌이 든다.

종양홀을 시원하게 띄워주어 형성한 건축공간과 사람들에게 온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해주도록 간접조명형식으로 처리한 천정조명, 은은한 색깔의 타일을 깔 바닥이며 연구소구내를 부문별로 구획지은 품위있는 장식유리, 고급벽지를 붙인 구내의 벽면들이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2012년 6월말 찌는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연구소구내의 벽면들에 고급벽지를 붙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는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제집에 들어섰을 때의 안정된 심리상태를 가지고 치료에 림할수 있게 하시려는

다심한 사랑이 담겨져있었다.

온 나라 여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다정히 부르는 평양산원에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일떠세워주신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건만 환자들의 얼굴에 비낄 자그마한 그늘까지도 따뜻이 헤아려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되어 연구소구내의 홀들은 물론 의사실, 입원실을 비롯한 여러 곳의 벽면들에는 고급벽지가 붙여지게 되었다.

입원실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면적이 30여㎡인 널직한 입원실에는 세명의 환자들이 입원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액정TV가 있는 입원실들에는 한겨울에도 추위를 모르도록 전기난방화가 되어있다. 그리고 은은한 색깔의 창가림으로 하여 더욱 포근한 감을 주는 입원실들에는 아무 때나 더운물을 쓸수 있는 세면장과 함께 샤워실까지 있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환자는 자기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이런 궁전같은 사랑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 꿈만 같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연구소에는 첨단의료설비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져있으며 환자들은 그 모든 설비들을 무상으로 리용하면서 치료를 받는다.

수많은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은 유선질병에 대한 예방치료와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연구소는 립상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의사들과 연구사들로 의료연구집단이 꾸려져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담보하고있다.

연구소의 의료일군들은 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해 세운 이곳에서 그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 유선질병을 제때에

조기진단받고 치료받을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은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 단위에 직접 내려가 위생선전활동을 벌리고 이동검진 및 치료대책을 면밀히 세우고있다. 그리고 수술적방법과 함께 물리치료, 고려치료, 약물치료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 700만 어머니들이 안겨사는 품

2023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조선에서는 제5차 어머니대회가 열렸다.
어머니대회!

무릇 인류력사는 어머니들의 력사라고도 일러왔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어머니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는 이런 대회는 아마도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한생 자식들을 위해 바쳐가는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며 조선의 700만 어머니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뵈게 된 기쁨, 반가운 마음으로 하여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써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순간 사회와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안고 남모르는 고생을 수없이 하면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앞에서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던 이 나라의 강인한 어머니들이 걱정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실가. 어쩌면 그리도 정깊으실가.

한생 자식들을 위해 바쳐가는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며 어머니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것처럼 값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르며 조선의 어머니들 누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중에서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은 어머니들의 심정은 북받치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왜 그렇지 않으랴.

온 나라의 열렬한 축하와 존경심이 집중되는 대회장에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들어서게 되기까지 그들이 바쳐온 헌신의 순간순간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연약한 두 어깨에 감당키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떠난 그길에 사심없이, 대가없이 진정을 바친분들,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깨끗한 량심에 항상 떳떳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이날이때껏 달려온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라고 제일먼저 대회참가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으니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다심하신 인민의 어버이가 또 어디 계시랴 하는 생각에 누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은 조선의 어머니들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었다.

누구보다 고생 많고 수고 많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숙원이며 여기에는 대대로 품어온 우리 어머니들의 꿈이 실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내용을 눈물속에 외웠다.

생각해보면 오늘 사회주의조선에 새겨진 뜻깊은 화폭마다에는 어느것이나 다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깃들어있다.

아침이면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이 깃든 사랑의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이 깃든 학용품을 가득 채운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즐겁게 노래부르며 학교로 간다.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맛있는 젓제품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란다. 훌륭히 꾸러진 소년궁전들과 소년회관들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가슴흐뭇한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종들에서 우리의 새세대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하고 선진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제일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이렇듯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들보다 더 다심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조국의 품이 있어 조선의 어머니들은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고있다.

△ 아동권리가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 나라

언제인가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이라는 제목의 편집물을 제작한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리나 말렌코가 《조선에서 참다운 아동권리, 여성권리의 실현을 보다》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인권을 론할 때 서두에 놓는것이 아동권리이다.

그것은 아동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정신육체적 특성상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그 사회의 진보성을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것도 그래서 나온 말일것이다.

조선이야말로 아이들의 왕국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아동권리가 가

장 훌륭하게 실현된 나라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로 되고있는것은 1959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제법규범으로 만든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이 국제법규범은 오늘날 매개 나라의 아동권리실태를 가늠하는 척도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규범들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있는 미국이 오히려 1990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가입하였을뿐 아니라 그 요구들을 가장 훌륭하게 실현한 조선을 《인권유린국》으로 모독하고 서방은 또 그것을 그대로 외위대고있으니 이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주요조항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국제인권규범들에는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교육의 년한과 내용 등에서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법화하고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2억 수천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는 미국에서는 소년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고있다.

그러면 조선의 현실은 어떤가.

조선은 자기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세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법화한 나라는 몇개 안된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 에스빠냐와 같은 나라들에서도 법적으로 규제한 의무교육기간은 9~11년이다.

수십년간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제재와 봉쇄속에 있는 조선이 12

년간의 의무교육을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완전한 무료로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은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국가가 온갖 배려를 돌린다는데 대해서도 법화하였다.

이러한 법적보호속에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조건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편집물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에서 보여준 평양학생소년궁전이 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세계일류급의 교육시설들과 그곳에서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조선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장 우월한 아동권리보장체계를 갖춘 조선의 꾸밈없는 현실이다.

△ 아이들의 호텔

조선동해 바다가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승지 송도원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솟아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가리켜 조선인민과 세상사람들은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찬탄하고있다.

누구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면서 이곳이 과연 아이들의 야영소가 옳은가, 왕이나 돈많은 사람들, 정객들이 찾아드는 궁전, 고급호텔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누구라없이 야영소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연방 《야, 야!》하고 감탄을 표시한다. 자기의 소감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표현해야 할지 언어를 고르지 못해 끝내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이라는 말로 함축해버린것같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우리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이고 궁전입니다.》

현대적인 야영각들이 바다가풍치와 조화되어 절경을 펼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는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무대, 야외활쏘기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실, 요리실습실, 침실, 식당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야영소의 모든 설비들도 제노라하는 기업가들이 선뜻 투자하기 저어하는 최신식설비들로 갖추어져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꿈만 같은 말들만 들으면서 야영소에 달려온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소년들모두가 신비로운 황홀경에 심취되어 온 넋을 잃는다. 우리가 잘못 오지 않았는가, 조선에서는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한단 말인가...

동화세계에도 없는 호화로운 궁전의 주인은 왕도, 돈많은 부자도, 정객도 아니다. 아직은 세상리치를 다는 모르는 평범한 아이들이 이 집의 주인이다.

여기서 어느한 평범한 초급중학생의 꾸밈없는 소감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는 어느한 중등학원에서 온, 량부모를 다 잃은 초급반학생이었다.

흥분과 경탄속에 야영소를 돌아본 자기 또래의 학생소년들이 저마다 호실들로 달려가 자기에게 배당된 침대에 좋아라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덩굴기까지 할 때 그 학생만은 2호야영각 203호실 자기의 침대우에 선뜻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그 학생의 침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4년 4월 30일 준공을 앞둔 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앉으시였던 침대였던것이다.

야영소에 와서 들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의 귀가에 쟁쟁히 울려퍼졌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훌륭하게 개건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

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1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아버지원수님.

야영소개건공사가 한창이던 때 찾아오시여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상할가봐 실내체육관의 장벽툭아오르기기재바닥에 폭신한 해면깔판을 깔아주자고, 야외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아이들이 자빠져도 상하지 않게 최상급의 고무깔판을 깔아주자고, 야외활쏘기장에 의자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물미끄럼대를 만들어주자고 뜨거운 어머니의 정을 담아 하시였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

수영장과 흡사이를 유리로 막아놓고 아무런 표식도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유리로 막은것을 모르고 들이받으면 이마에 혹이 생길수 있다고, 삼각형표식을 하든지 무슨 장식을 해주어 아이들이 유리를 들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란간에 기대여 아래를 내려보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고, 란간을 든든하게 당장 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놀다가도 시간을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원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주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하나라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생겨난 신비한 《미궁》의 세계-거울집.

몹소 침대에 앉으시여 침대의 높이와 크기, 색깔과 폭신함도 헤아려보시고 침대사이에 간식을 담을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제일 맛있는 간식을 가득 채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학생소년들이 야영생

활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신 원수님을 그리며 학생의 불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제일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아버지원수님께서 앉으시었던 침대에 나같은 평범한 아이가 과연 어떻게 누울수 있단 말인가.

좋은것이 차례지면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기쁨과 환희속에 즐기는것이 아이들이다.

하기에 아이들의 눈동자에 비낀 웃음이나 불안, 걱정은 그 누구도 연출할수 없는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아직은 한창 동심세계에 빠져있을 나이였으나 그 학생은 사랑의 침대우에 선뜻 몸을 던질수 없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앉으셨던 침대에 바로 너와 같은 학생들이 누워 자야 아버지원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지도원선생님의 이야기에 그 학생은 물론 둘러선 학생들모두는 야영소 곳곳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취가 삼삼히 어려와 눈굽을 적시였다.

조선의 모든 아이들은 이런 위대한 아버지의 품, 한없이 따스한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아직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최상의 인권을 누린다.

△ 동화세계에 빠지게 하는 육아원과 애육원

오늘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빈궁과 각종 질병, 범죄의 희생물로 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만을 알며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의 명량하고 밝은 모습은 조선의 인권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여나고있는 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단숨에 일떠서 세인을 경탄시켰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기재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이며 특색있고 아담하게 건설된 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과 치료실, 지능놀이실과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갖가지 유희시설, 오락기재들과 교통공원을 비롯하여 보육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보육실과 교양실, 자연관찰실, 물놀이장, 식사실, 내정 등 모든 생활실들과 놀이터들이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진데 대해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그 누가 그늘 한점 없이 밝고 명랑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겠는가.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행복동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조선로동당의 품속에 안긴 조선의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절대로 빼앗을수 없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조선의 아이들, 조선인민만이 터칠수 있는, 꾸밈도 가식도 없는 심장의 찬가이다.

동해의 명승 원산에 또 하나의 아이들의 궁전이 일떠섰다.

보육실,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모든 방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된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특색있게 형성된 애육원의 원형관통홀도 볼수록 희한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것이지만 중앙에서 내려보내준 표준설계

에 준하면서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된 육아원, 애육원의 외부, 우리가 만든 마감전재를 리용한 외벽과 내벽타일, 위생자기는 물론 야외에 깔아놓은 고무깔판, 그 어느것이나 높은 수준이다.

모든 시설들이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구색이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을뿐 아니라 요소요소들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들의 창발성, 자립성을 키워줄수 있게 잘 꾸려진 육아원, 애육원은 량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도 참으로 부러워할 원아들의 훌륭한 보금자리이다.

평양과 원산만이 아닌 전국의 곳곳에 일떠서고있는 아이들의 궁전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위해주며 사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다.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인권보호, 인권보장의 절대적우월성이 있는것이다.

△ 가혹한 재난속에서도 잃지 않은 꿈, 희망…

언제인가 돌풍과 무더기비로 하여 조선의 함경북도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아직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재롱을 부려야 할 어린 나이에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온몸에 감탕칠하고 신발 한짝밖에 신지 못하고있는 한 소녀를 만난 국제피해조사기구구성원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국제기구구성원들의 물음에 소녀는 주저없이 당돌하게 대답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옷도 신발도 다 생긴다. 나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겠다.》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무엇을 믿고?) 이것이 국제기구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의혹이었다.

어떻게 되어 것처럼 당돌하고 창창하며 확신에 차있었던것인가.

2012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직접 뵈옵게 되었다.

동심은 어쩔수 없다. 행사시작전까지도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웃고 떠들고 뛰여다녀 선생님들의 속을 태우던 철없는 아이들, 그들을 축하해주시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실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이들과 꼭같이 소년단넥타이를 매시고 사랑과 정이 가득 넘치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축하연설까지 해주실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것을 축복해주실 때 아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의 행복의 찬가로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고 늘 마음쓰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드리는 아이들의 고마움의 눈물은 이미 자기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은 민들레학습장과 소나무책가방에도 어려있고 명당자리와 명승지

들마다에 세워진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들에도 어려있다.

아이들의 눈물은 가장 깨끗한 진심의 토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아이들은 이렇게 정으로 인연을 맺었기에 어린 그 소녀가 것처럼 엄혹한 재난속에서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것이다.

아이들은 가식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행복만이 아니라 슬픔과 지어는 자그마한 아픔까지도 감출줄 모른다.

조선의 아이들은 누구나 어른이 되면 늘 입가에서 웃음이 가실줄 모르고 행복하게 지낸 어린시절을 두고두고 추억할것이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 제도가 있어 가혹한 재난을 당한 아이들만이 아니라 나라앞에 죄를 지은 부모들때문에 그늘을 안고 살던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날이 갈수록 잃어지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가고 꽃피워지고있는것이 조선의 모습이다.

△ 대규모수산기지 - 누구를 위한것인가

조선동해포구에 가면 1월8일수산사업소로 불리우는 대규모수산기지가 있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된 현대적인 수산사업소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 처음으로 안겨오는것은 검푸른 바다를 시원히 헤가르며 비행장활주로마냥 뻗어간 방파제이다.

마치 광란하는 자연을 손아귀에 그리잡은 거인의 억센 팔을 방불케 한다.

그뒤로 능력이 큰 하륙장도 보이고 고기배들의 수리정비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는 배올림대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극동기, 수산물랭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앉은 랭동창고들도 보인다.

당장이라도 물고기를 그득 싣고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
등학교, 양로원들로 달려갈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늘어선 랭동차
들의 뒤에는 비행기격납고를 련상시키는 차고까지 훌륭히 일떠서있다.

수산사업소에 펼쳐진 풍경에서 가장 이채를 띠는것은 쏟아져내리
는 물고기사태이다.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온 고기배들이 밤낮으로 물고기폭포를 쏟아
내는 하륙장은 보기만 해도 장쾌한 물고기바다이다.

포탄상자마냥 차곡차곡 쌓아올린 랭동물고기들이 가득찬 저장실은
갈데없는 물고기산이다.

포구로 들어서는 고기배들의 선창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

현대적인 1월8일수산사업소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해 마련한
창조물이며 여기서 풍겨오는 진한 바다향기는 사람들이 너나없이 흐뭇
해지게 한다.

가없이 넓은 바다를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황금해로 되게 하는것
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
당과 정부의 일관한 정책들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모든 원아들과 양로원로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베풀어주신 뜨거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뜨겁게 가슴에 안고
산다.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허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
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
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연간 그 수량이 얼
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셨다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뜨거운 이야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
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변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말아하자고 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절절한 말씀...

실로 1월8일수산사업소에 넘쳐나는 바다향기는 날로 더해만 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길이길이 전하고있다.

△ 행복한 삶을 누리는 로인들

조선에서는 로인들이 즐겁고 낙천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들의 하루일과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유보도에 나와 거닐거나 체조를 하는 등 간단한 운동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름답게 꾸러진 공원과 강반들에서 국제, 국내체육경기들에 대한 열띤 론쟁을 벌리는가 하면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는 로인들을 볼수 있다.

또한 거리와 마을의 곳곳에 꾸러진 공원과 휴식장소들에서 장기와 윗놀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서늘한 그늘에 앉아 독서에 열중하기도 한다.

명절이나 일요일의 생활은 더욱 이채롭고 풍만하다.

북과 장고를 울리며 춤판을 펼치기도 하고 훌륭히 꾸러진 공원들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을 보며 열정적으로 응원하기도 한다.

랑만에 넘친 이들의 모습은 결코 저절로 펼쳐진것이 아니다.

조선에서 년로자보호사업은 국가와 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2003년 4월 조선년로자보호련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있으며 2007년 4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었다.

조선년로자보호련맹에서는 년로자들의 편의와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인구로화, 년로자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기구들과의 연계와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인들을 각별히 돌봐주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속에 이들은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로인들은 사회와 가정의 그 어디에서나 존경과 우대를 받고있으며 장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나라에서는 누구나 90살이 되면 장수자로 등록하고 그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100살이상의 장수자들에게는 생일상도 차려준다.

또한 근로자들로 근로자협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전문지식과 기술,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도 하도록 하고있다.

평양양로원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근로자보호정책을 뚜렷이 보여주는 창조물이다. 2015년 8월 7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자리잡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건설되었다.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합각지붕의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에는 침실과 식사실, 도서실, 운동실, 치료실, 내정을 비롯하여 로인들의 건강장수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장수에 필요한 온갖 시설들을 그췌히 갖추고 모든 요소요소가 보양생들의 신체적,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비반복적이면서도 독특한 내외부시공과 특색있는 내정의 형성, 건물을 련결하는 외랑과 야외휴식터, 원림록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사가 철저히 구현된 멋쟁이건축물이다.

새 집에 들어서서는 보양생들은 평범한 자기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당의 은덕이 너무 고마워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시책속에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것이다.

△ 장애자들을 위한 조치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적시책이 오래전부터 실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위해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보아주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1951년 전시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 일떠서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교정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까지도 국가부담으로 그 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룡아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 장애어린이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1998년에 조직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심은 장애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적으로 보살펴주는것이다. 련맹산하에 조선롱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어 장애자들의 건강회복과 사회활동,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2023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 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회복치료체계도 원만히 세워져 장애자들이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여러가지 회복치료를 위한 료양소들이 나라의 곳곳에 세워져있고 료양치료뿐 아니라 료양소에 오고가는 왕복려비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장애자들이 료양소들에서 무상으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으며 2013년에는 수도 평양시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또한 질병의 조기적발, 조기진단 및 등록과 치료대책을 세워 질병으로 인한 로동능력상실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현대적인 건축물들마다에도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장애자검사탁과 장애자전용위생실, 맹인도로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과학기술전당에도 장애자들을 위해 특별히 꾸려진 열람실이 있다. 여기에서는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들이 컴퓨터조작안내동영상과 음성안내프로그램을 통해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마음껏 열람할수 있다.

조선에서 장애자들은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적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자기의 취미와 희망에 따라 리발,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작업 등 여러가지 로동생활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존엄, 리익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실천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는것을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미국 AP통신사, 영국 APTN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기관들이 현지참관과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조선에서의 《장애자말살》이요, 뭐요 하는것은 어떻게 하나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압박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너절한 시도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붓을 놓으며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로 하여 지금 조선에는 부족한것도 적지 않고 어려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이 바라는 소원이 하나하나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런데도 조선의 《비참한 현실》이요 뭐요 하는 악선전과 매수된 《증인》들, 월경도주자쓰레기들에 의해 꾸며진 《증거》자료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행태로 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옳바로 보지 못하고있다.

2020년에 들어와 500여만명이라는 시청률로 보도계를 놀래운 평양취재보도물TV방영은 오늘의 조선의 모습을 사실그대로 화면에 담은것으로 하여 많은 시청자들을 경탄과 놀라움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고 한다. 현지에서 직접 찍어보낸 베이징주재 《프랑스2TV》 특파기자 미계자신도 평양이 이렇게 멋있는 도시인줄 몰랐다고 감탄하였다.

조선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조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평양에 와서 믿기 어려운 조선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것이 더 나을것이다.